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세금
보고
703-961-8811

“뒤집힌 밥그릇’ 제대로 나라” 로널드의 남자가 말한 답은 ‘도널드’

(레이건)

(트럼프)

특별 인터뷰

레이거노믹스 창시자 ‘아서 래퍼’

세상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면 ‘죽음’과 ‘세금’이란 말이 있다. 세수는 국가 운영에 필수지만, 지나치면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 근거가 된 대표적인 이론이 ‘래퍼 곡선(Laffer curve)’이다. 세율의 변화와 세수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밥그릇을 엮어놓은 모양이다. 이에 따르면 세율을 올리면 일정 수준까지는 세수가 증가하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경제 주체의 의욕이 낮아져 오히려 총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이 곡선을 고안한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 래퍼곡선(라퍼곡선)을 지난 6일 화상으로 인터뷰했다.

래퍼는 닉슨과 레이건 행정부에서 활동했으며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캠프에서 경제 고문을 맡았다. 트럼프는 사실상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상태다. 트럼프는 재선 성공 시 래퍼를 포함한 3명의 인물을 차기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래퍼는 트럼프의 당선을 낙관하면서 “레이건을 뛰어넘는 최고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세(減稅) 정책을 펼친 대표적인 국가 지도자다. 래퍼는 “올가을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또다시 미국뿐 아니라 세계경제가 성장 가도에 오를 수 있

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경제가 순항 중이라는 평가가 많다. “절대 아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나아진 것일 뿐 ‘경제가 좋다(great)’는 말은 할 수 없다. 현재 인플레이션율(2월 3.2%)은 여전히 트럼프(1.5~2.9%) 재임 시절보다 높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물가는 18~19% 올랐다. 사람들에게 경제적 인플레이션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 먹고살기 위해 매일 들르는 식료품 마트 가격이 중요한 거다. 물론 최근 인플레이션율이 2022년 9%에서 3%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이는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의미일 뿐이다. 가격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런 이유에서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나쁘다(awful). 단지 지난해보다 나쁘지 않을 뿐이다.” 배정원 기자 >> 10면 ‘도널드’ 로 이어집니다



‘불멸의 빛’이 된 서해수호 55용사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이틀 앞둔 20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문 광장에서 ‘불멸의 빛’ 점등 행사가 열렸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55명의 용사를 추모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는 55개의 조명으로 3개의 대형 빛기둥을 형성 화해 22일까지 매일 밤 8시부터 55분 동안 대전현충원 상공을 비출 예정이다. 프리랜서 김성태

용산 ‘이·황’ 물러섰지만 여권 비례갈등은 격화

황상무 자진사퇴, 이종섭 오늘 귀국 윤 대통령, 민심이반 보고에 수용 이철규 “불투명 공천” 한동훈 비판 봉합되던 여권 갈등, 재점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0일 오전만 해도 2차 ‘윤·한(尹·韓) 갈등’의 발화점인 이종

섭 주(駐)호주 대사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거취 문제가 풀리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듯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서 더 큰불이 비례대표 공천 문제로 옮겨붙었다.

진윤 핵심 인사인 이철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공천의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당 지도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사실상 한 위원장을 겨냥했다. 이에

한 위원장과 가까운 장동혁 사무총장이 “공천 과정에 공관위원, 사무처 당직자들이 함께 참여했고 국민들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며 이 의원의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이날 오전 황상무 수석이 ‘언론인 회갈 테러’ 발언 논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MBC 등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1980년대 언론인 회갈 테러

사건을 언급해 파장이 커지기 시작한 지 몇새 만이다. 이어 ‘수사 회피’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대사가 곧 귀국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한 위원장이 지난 17일부터 사흘 연속 이 대사의 즉시 귀국와 황 수석의 사퇴를 요구해 왔는데, 결국 윤 대통령이 이를 전격 수용한 모양새였다.

당초 대통령실에서도 두 사람의 거취 문제를 오래 끌고 가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오섭 정부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은 한 위원장의 요

구가 있기 전날인 16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윤 대통령을 찾아갔다. 이들은 ‘이종섭·황상무 리스크’에 대한 심상찮은 여론을 보고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원칙을 함부로 훼손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먼저 각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국민께 설명하자”며 회의는 끝났다. 비판 여론은 인지했으나, 여론 압박이나 정치권의 공세에 떠밀리듯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원칙론이 강했던 것이다. 허진·박태안·이창훈 기자 >> 2면 ‘윤·한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홍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여기 물리지 않아요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울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이철규 “한동훈, 이재명과 뭐가 다르냐” ... 친윤-친한 격앙

(친윤)

▶ 1번 ‘윤-한 갈등’에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후 여론은 악화일로였다. 19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발대식에 모인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이대로 가면 총선은 망한다”며 황석사퇴와 이 대사 귀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폭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황상무 자진 사퇴 수용, 이종섭 조기 귀국’이란 결론을 냈다. 이 대사는 21일 귀국해 다음 달 10일 총선 때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 25일부터 열리는 호주 등 6개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할 뒤 행사가 끝나고 출국하지 않는 형식이다.

여권 관계자는 “관련 회의가 갑자기 잡힌 것으로 안다”며 “이 대사는 본인은 귀국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본인의 거취를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참모들 사이에서 ‘이대로 가면 총선 결과가 100석 미만이다’ ‘민심을 잘 받들어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 대통령 덕분일 것’ 같은 말이 계속 나왔다”고 했다. 19일 밤에는 “총선 직전에 갈등이 길어지면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다양한 경로로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결정 과정이 길어지고 그사이 당정의 이견도 부각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 위원장의 공개 요구를 윤 대통령이 모두 수용한 모양새가 연출됐다. 1월에 불거진 1차 윤-한 갈등에 이어 2차 윤-한 갈등도 봉합되는 수순으로, 여권이 내뿜은 공멸하는 장면은 피하는 그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오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에선 “총선을 코앞에 두고 양측이 또 정면충돌로 치닫는다면 이는 ‘윤·한’을 포함한 여권 전체의 공멸을 의미한다. 이제 갈등은 해소된 것으로 본다”는 말이 나왔다.

반전은 오후에 일어났다. 친윤계 핵심이자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 겸 공천관리위원장 이철규 의원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면서 새로운 양상이 펼쳐졌다. 이 의원은 18일 국민의힘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발표된 직후 “비대위원 2명이 비례대표에 포함되고, 호남 기반 정치인 배제가 실망스럽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한 위원장의 사천(私薦) 논란을 제기했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비례대표 공천은 그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비례대표를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고심해서 결정할 이후 국민의미래로 이관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지도부에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미래는 자매정당인 국민의힘과 한 몸”이라며 “국민의미래 당직자 임명부터 공천 과정이 한 위원장 책임하에 진행돼 왔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례대표 명단 논란의 핵심 책임자가 한 위원장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이는 친윤계와 대통령실 주변 인사들이 “한 위원장이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사실상 사천을 했다”고 반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여권의 주목을 끌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8일 비례대표 후보가 공개되기 10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초원어린이공원 인근에서 거리 인사도 중 만난 시민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분 전야 명단을 받아 본 윤 대통령은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특히 윤 대통령과 가까운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이 사실상 당선권 밖인 24번에 배치된 데 대해 친윤계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느낌”이란 반응을 보였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비례대표 명단을 본 뒤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다’는 취지로 배신감을 토로했다는 말도 들린다”고 전했다.

비례대표 공천 문제는 친윤계와 친한계의 진실 공방과 감성싸움으로 변했다. ‘이 의원이 일부 인사의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그는 “당규에 근거해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장에게 당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 특히 호남 지역 인사, 노동계·장애인·종교계 등에 대해 배려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것은 권한 없이 청탁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그는 특

히 “어떤 분들은 왜 국민의힘 인재영입 위원장이자 공관위원이 국민의미래 공천에 관여하느냐. 월권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 월권이고 모두 다 잘못된 것”이라는 말도 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과 같은 제왕적 정당 대표가 아니잖느냐”며 “이재명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고 직격도 했다.

이 의원은 한 위원장의 최측근인 장 사무총장을 별도로 겨냥한 발언도 했다. 그는 자신과 한 위원장이 고성을 섞어가며 말싸움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왜곡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며 “배후에 누가 있는지 기자들은 잘 알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장 사무총장은 약 2시간 뒤에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그는 “공천 과정에 외부 인사를 포함한 공관위원, 사무처 당직자들이 함께 참여했고 국민들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며 “당내 잡음으로 공천 결과 자체에 대한 신뢰

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원과 국민들이 전혀 바라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인 저는 총선 승리를 위해 일일이 반박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도 반박에 나섰다. “과거 한 위원장이 저에게 ‘비대위원은 적어도 비례 나오면 안 된다’고 했었다”는 이 의원의 말에 한 위원장이 주변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이다.

한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들은 부글 부글 끓고 있다. 김경울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지난 18일 비례대표 문제를 제기한) 이철규 의원의 장문의 페이스북 내용을 번역하자면 ‘왜 내가 심으려는 사람이 비례대표 명단에 없냐, 그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공개 저격했다. 또 다른 친한계 인사는 “이 의원이 자기 장사를 하려다 사고를 치고선 오히려 화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갈등이 앞으로 여권의 큰 뇌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뿐 아니라 이제 친윤계와 친한계마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모양새”라며 “총선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크게 몰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밤 늦게 국민의미래 공관위는 일부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조정했다. 당초 명단에 없던 전북 4선 출신의 조배숙 전 의원과 당직자 출신인 이 달희 전 경북 경제부지사가 각각 13번과 17번에 배치됐다. “호남과 당직자 출신을 배려하라”는 친윤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강세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13번에서 21번으로 밀렸다.

허진·박태민·이창훈 기자



이철규

천안함 막말, 성범죄자 변호... 민주당 후보들 과거 이력 논란

(노종면·조한기·박선원 등(조수진))

국민의힘 내에서 5·18 폄해 발언 논란 등으로 4·10 총선 공천 취소가 잇따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총남 서산-태안의 조한기 후보는 2010년 7월 페이스북에 “1번 여권에 대해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언론

의 집단적 담합은 무엇인가”라며 “너무 심각한 여론 왜곡”이라고 썼다. 일각에서 북한이 ‘1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조 작됐다는 음모론을 폈는데, 조 후보가 이에 동조한 것이다. 이후 이런 음모론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부평갑 노종면 후보는 2014년 3월 언론 인터뷰에서 “천안함

폭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모든 언론은 가짜”라고 주장했다. 인천 부평을 박선원 후보는 2010년 5월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미 관계자’) 이명박 정부는 여러 피습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는 물증을 찾고 있다고 했다” “천안함 사건은 안보 실패의 가장 처참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엔 ‘천안함 자폭설’을 주장한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이 혁신 위원장으로 지명된 데 대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비판하자 권철승(경기 화성병) 후보는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하나.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발언했다. 논란이 커지자 권 후보는 천안함 유족과 최 전 함장에게 사과했고, 이래경 이사장은 지명 8시간 만에 낙마했다. 서울 동대문을 장경태 최고위원도 당시 라디오에서 “군인이

라면 경계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침략을 당한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있다”고 거들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5·18 폄해·난교’ 발언 등이 문제가 되자 후보 2명의 공천을 잇따라 취소했다. “천안함 사건 막말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여권의 비판에 민주당 관계자는 “특정 사건에 의혹을 제기하거나 사건을 낸 것만으로 공천을 뒤집어 버리는 것은 무리”라고 맞섰다.

손국화·성지원 기자

워싱턴 날씨 (°F)

22일(금)	57~46	☀️	25일(월)	59~42	☀️
23일(토)	54~37	☁️	26일(화)	53~45	☀️
24일(일)	55~39	☀️	27일(수)	56~51	☁️

3월 21일(목) 49~32

워싱턴 중양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식당	Beer & Wine	창고
식당 달은 자리 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	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MD,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	발티모아 부근 창고 임대 구하시분 5000-8000
식당 달은 자리 단층짜리 단독 건물 임대, 7,100 SF, 와이마켓 MD	주18만불 수입, 렌트 \$7200, 2400 SF, 일링턴 VA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	창고자리 임대 전기사실 완벽 9000 SF, 버지니아현트
도장	사무실	상가
태권도장 자리 2700 SF, 임대, 버지니아 폴스처치	에난데일 사무실 1200 SF 사무실, 병원 적합, 35만불	상가 매매 VA 비엔나, 연 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태권도장 자리 2900 SF, 임대, 버지니아 에쉬번	사무실 자리 임대 고급, 타이슨스코너 엘리리아 바로 옆 최고급 컨퍼런스룸, 경비원24시간, 8300 SF.	발티모아 상업건물 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 아파트
사무실 자리 임대 워싱턴 디씨, 교통좋은 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 찾습니다	주택 빌2, 화2, 차고1, 메트로근처 웨그맨옆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	

주 택 투자 컨설팅 주재원 렌딩 서비스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사업 체 공장/사무실/ 창고 설립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ONE REALTY ONE 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스지

“민생법안 15개 성사, 주민들 삶의 질 높였어요”

아이린 신 의원 의정보고회

아이린 신 버지니아 하원의원(민주, 제 8선거구-사진)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

작년 11월 재선에 성공하고 올봄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 신 의원은 이번 정기 회기에 발의한 법안 중 모두 15개 법안을 성사시켰다고 전했다.

양당 의원 상당수가 이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법안에 주력하는 반면, 신 의원이 발의하고 통과시킨 법안은 대부분 민생과 인권 관련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이 통과시킨 법안 중 위급상황 유틸리티 보호법(HB906)은 재난 상황에서 주지사 비상사태가 선포될 경우 전기와 가스, 수도요금 등을 미납했다더라도 30일 동안은 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온이 화씨 32도로 내려가거나 화씨 92도 이상 올라가는 날씨가 24시간 내에 도래하게



나 예상될 경우에도 공급을 끊을 수 없도록 했다.

공급중단 예정일이 금, 토,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다른 날로 연기하도록 했다. 공급 중단 전에는 반드시 요금미납으로 인한 사유를 고지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무상의료보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를 통해 부모를 간병하는 자녀에게 다른 간병인을 고용했을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는 법안(HB925)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장기요양 중인 한인1세 부모와 이들을 간병하는 2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개념을 도매 거래로 확대하고 정부 규제를 받도록 하는 법안(HB917), 차량검사 미비 및 등록유효기간 경과 차량을 견인조치할 경우 입주자에게 48시간 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약탈적인 토임 관행을 뿌리 뽑는 법안(HB925)도 주목 받았다.

이밖에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음란물을 배포하는 ‘리벤지 포르노’ 법률 적용 대상 사진 등을 생식기 노출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부위의 성적 이미지까지 모두 포함시켰으며,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HB926), 대학 캠퍼스에 성폭행 DNA 검출 키트

를 구비하고 피해자의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하는 법안(HB1342), 지역정부의 역사지구 지정시 텍스 크레딧 부여 법안(HB914), 투표장 근처 총기 보유 금지 반경을 40피트에서 100피트로 확대하는 법안(HB939), 유권자 명부중 보호대상자로 투표장 종사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법안(HB943) 등을 입안 및 통과시켜 세심한 입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신 의원은 4월15일 네팔계 미국인의 날을 지정하는 결의안(HJ42)을 상정해 아시안 커뮤니티와의 연대를 과시했다.

한편 아이린 신 의원은 한인커뮤니티의 한결같은 격려와 지원으로 뜻깊은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804-698-1008)나 이메일(delishin@house.virginia.gov)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미 기자

안수화 후보 MD한인회장 ‘당선’



안수화(사진) 후보가 심사를 거쳐 38대 메릴랜드 한인회 회장으로 당선 확정 됐다.

안 후보에 따르면 “메릴랜드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원자)가 입후보 서류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해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에 당선 되었음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알렸다.

안 후보는 “51년의 긴 여정으로 달려 온 메릴랜드 한인회의 38대 회장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웃을 내 고향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긍정적 사고로 화합해 후손들에게 물려 줄 한인 역사 연구에 노력을 기울일것이며 이 여정에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함께 이뤄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윤미 기자

탈북자들이 증언한 ‘북한 속 자본주의 실태’

“북한에서도 살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돈 벌어야”

“북한에서도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으며 그 중심은 장마당이다. 그러나 장마당에서 돈많은 사람은 결국 죄인이 되고 만다.”

자유북한연대(수잔 솔티 대표)가 연방의회와 UN 등에서 탈북민 증언 행사를 개최했다.

자유 북한 연대는 지난 18일 뉴욕소재 UN에 이어 19일 연방의회내 레이번 빌딩에서 북한 장마당 활동과 개인 사업을 통해 제한적인 자본주의를 경험했던 탈북민들의 증언 행사를 개최했고, 20일에는 영 김 의원 사무실 등을 방문해 탈북민들과의 만남을 추진했다.

이들 탈북민들은 배유진, 김지영, 김향원 씨 등으로 “북한의 장마당 등을 통해 돈을 모았다가 적발되면 당국의 철퇴를 맞고 몰락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북한 내부의 자본



19일 버지니아 애난데일 소재 한식당에서 관계자들이 모임을 갖고 기념촬영을 했다.

주의 시장은 사라져서 안되고 지속되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북한 주민 80%가 장마당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는 등 엘리트 계층으로 북한에서 살았던 김지영 씨는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이어진 ‘고난

의 행군’ 시기를 겪으며 북한 체제에 회의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친구 중 한 명이 장사꾼으로 시장에서 부를 쌓으며 가족 중 누구보다 잘 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식당을 개업해 운영하다 적발돼 고초를 겪었고, 결국 북한을 탈

출했다”고 전했다.

배유진 씨는 량강도 예술단의 가수이자 노동자로 일하다가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북한 당국이 식량 배급과 월급 지급을 중단하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시장 체제에 뛰어들었다. 그는 “장마당이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상품과 남한 드라마를 거래하며 부자가 됐다”고 했다. 그러나 당국에 적발돼 전 재산을 몰수 당했고, 결국 2019년 가족들과 대한민국으로 탈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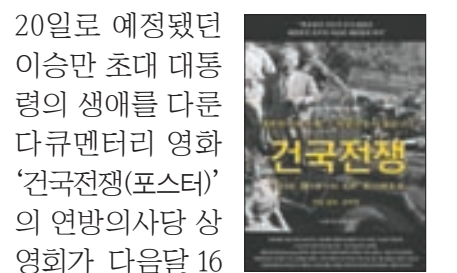
김향원 씨는 국영 건설회사에서 3년간, 해산 방직공장에서 4년간 노동자로 일했다. 그러나 기근이 이어지며 국경 지역 인근에서 중국인들과 북한산 광물을 싣고 옥수수 가루로 바꿔치기 하는 자영업업을 시작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그를 따라하는 업자들도 생겨나고, 전국적인 유통 사업까지 일궈냈다. 하지만 “당국의 단속과 주변인들이 검거되자 위협을 느껴 2008년 북한을 탈출했다”고 전했다.

박세용 기자

<건국전쟁>

연방의사당 상영 연기돼



20일로 예정됐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포스터)’의 연방의사당 상영회가 다음달 16일로 연기됐다고 한미연합회(AKUS) 워싱턴 지회가 알렸다. ‘건국전쟁’은 지난 주말 북버지니아 타이슨스에서 상영돼 1,000여명의 관객을 모으며 한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영화의 연방의사당 상영 결정은 국내외 언론을 통해 큰 관심을 받은바 있다.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음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MATCHINGPOINT 매칭포인트 결혼정보회사

VA/MD/DC 한인들을 위한

새로운 결혼매칭서비스 런칭!

가까운 인연, 먼 길을 돌아오기에 당신의 노력과 전문적인 만남의 주선이 필요합니다. 매칭포인트는 초혼, 재혼을 위한 의미있는 만남을 소개합니다.



QR코드 스캔 후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가입 절차 확인 및 편리하게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571-591-7727

웹사이트 www.mymatchingpoint.com



취재 수첩

재외동포는 호구인가

“재외선거 참여는 당부하면서 유권자의 손발은 묶어 놓았다. 재외선거 제도만 도입했을 뿐 재외유권자를 ‘호구(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사람)’ 취급한다.”

한국 제22대 국회의원(총선) 재외선거가 3월 27일~4월 1일 세계 곳곳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미주 지역 10개 재외공관에 파견된 재외선거관은 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한인사회는 조용하다. 한인사회에 재외국민이 다수지만 총선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재외선거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 기대와 비교하면 초라할 정도.

참정권 보장이라는 재외선거제도는 등록 유권자를 볼 때 생기를 잃고 있다. 22대 총선 재외유권자 수는 총 14만 7989명(재외국민 약 247만 명)으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와 비교해 34.6% 줄었다. 2020년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14% 감소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운동에 나선 여러 한인단체는 한국 정치권과 중앙선거위원회의 ‘일방통행’을 문제로 지적한다.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며 한인사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여론을 반영하는 대신, ‘남의 나라’에서 치러질 선거 부정을 우려해 규제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그동안 재외선거제도는 복잡한 유권자 등록절차, 현지 지리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우편투표 불가 방침으로 재외국민의 불만을 초래했다. 한인사회가 즐기게 요구하는 우편투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치권과 중앙선거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제도 개선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회부 김형재 기자

이와 관련 중앙선거위는 “재외선거는 국외에서 실시되는 만큼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달리 공정성 확보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국내 선거운동과 달리 국외에서 허용해도 큰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운동 방법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재외선거 주인공인 재외유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벗날 수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재외선거운동 규제는 결과적으로 선거 참여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여야 정당은 총선 재외선거를 앞두고 공약집을 내놓으면서 “지구촌 재외동포와 함께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상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발표에서 재외동포를 대표할 후보는 아예 제외했거나 당선권 밖으로 뺐다.

중앙선거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 안내’를 강조하며 자칫 주권침해도 보이는 현지 감찰과 조사에 나서고 있다.

현행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한 정치권과 중앙선거위원의 모습은 이슬우화 ‘여우와 학’의 식사초대를 떠올리게 한다.

12년째 재외국민을 위한 잔치상을 마련했다지만, 주인공을 호구 취급하듯 선거참여 편의증진이나 여론수렴은 외면하고 있다. 재외국민의 소중한 한 표, 민주주의 초석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올바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약값 수수료 인상에 한인 약국 휴업

월 25% 수수료에 적자 운영
20곳 휴업, 100곳 부분 파업

한인들이 운영하는 약국들이 변경된 약값 수수료에 반발해 휴업에 들어간다. 약국들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처방약 보험료 청구 절차를 관리하는 중간업체 ‘약국혜택관리자(PBM)’들이 일방적으로 최대 25%에 달하는 수수료를 매기면서 적자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소규모 한인 약국들 경우 PBM 회사들이 일방적으로 약값 지급을 거부하거나, 또는 할인 혜택을 내세워 우편 처방약 프로그램으로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한인 고객들을 대형 체인 약국으로 유도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주한인약사회(회장 마틴 김)는 캘리포니아약사협회(CPA)와 함께 오는 4월 2일 약국 문을 닫고 새크라멘토에 있는 주 의회를 찾아가 수수료 인하와 주 의회에 상정된 PBM 감사 내용이 담긴 약국 정상화 법안(SB 699) 통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거주한인약사회는 지난 18일 오후 한인타운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당일 새크라멘토 시위에 참석하는 한인 약사들을 확정하고 대응 방법



오는 4월 2일 약국 문을 닫고 새크라멘토 주청사 방문하는 거주한인약사회 회원 20여명이 포스터를 보여주고 있다.

등을 논의했다.

거주한인약사회에 따르면 이날 한인 약국 20곳이 문을 닫고 새크라멘토에 방문해 의원들을 만나 한인 약국 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법안 통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당일 동참이 어려운 한인 약국 100여곳은 반나절이나 2~3시간 동안 휴업하는 방식으로 주 정부에 항의를 표시할 예정이다.

마틴 김 거주한인약사회장은 “초창기 PBM사들은 약 제조업체와 약값을 협상해 할인받은 가격을 약국과 환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며 이에 대한 처방약 청구 처리비로 3~5%의 수수료를 받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일방적으로 25%에서 30%까지 부과해 운영을 어렵

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사회에서 공개한 PBM사의 약값을 보면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수치를 조절하는 마운자로(Mounjaro) 2.5mg의 경우 원가가 1052달러이지만 PBM의 금액은 1031달러다. 천식 환자용 알부테롤 인헤일러는 원가(13.3달러)보다 1.17달러가 적은 12.13달러만 일방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김 회장은 “원가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는 처방약 리스트만 200개에 달한다. 약을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운영하다가 한인 약국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사진=장연화 기자

한진 ‘숲’, 동부 B2B 시장 진출

K-패션 해외 지원서비스
패션고에 브랜드관 개설

한국 한진은 지난해 2월 출시한 K-패션 해외 지원 서비스인 ‘숲(SWOOP)’이 동부 프리미엄 패션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 진출했다고 18일(한국시간) 밝혔다.

미국내 B2B 패션 유통 물류 시장에서 한진 점유율은 48% 수준이다.

한진은 지난 11일 미국 대형 B2B 채널인 ‘누오더(NuORDER)’에 브랜드

관 형태로 입점했다. 누오더는 주어(JOOR), 르뉴블랙(Le New Black)과 함께 3대 글로벌 프리미엄 패션 전문 유통 플랫폼으로 꼽힌다. 메이시스, 블루밍데일스 등 굴지의 고급 백화점 바이어들이 상품을 매입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진은 숲 브랜드관을 통해 한국 중소 패션 브랜드가 동부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진은 일반적인 B2B 시장과 달리

브랜드 고유의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누오더 특성을 고려해 한국 중소 브랜드에 전문적인 큐레이팅과 온오프라인 판매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 첫 시도로 여성 디자이너 브랜드 티백, 가방·잡화 브랜드 디어니스·투오, 친환경 데님 브랜드 굿텐 등 국내 4개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진은 2022년 6월 서부 중심의 B2B 패션 플랫폼인 ‘패션고’(FashionGo)에 브랜드관을 개설한 데 이어 그해 10월 중순에는 ‘LA쇼룸’에 입점하는 등 해외 바이어대상 유통 채널에 힘을 쏟아왔다.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연준, 연내 3차례 금리인하 유지

인플레이 우려 재점화 불식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일 기준 금리를 5.25~5.50%로 5연속 동결하면서 연내 예상되는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3회로 유지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둔화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과잉 긴축'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월가의 관심은 연준 위원들이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 방침을 유지할지에 쏠려있었다.

앞서 연준이 지난해 12월 FOMC 직후 공개한 점도표에서는 연준 위원들이 2024년 중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는 전망이 담겼다. 이 같은 점도표 결과를 시장에서 연준이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기조로 선회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올해 1월에 이어 2월 들어서도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기록되면서 물가상승률이 2%대 후반에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확신'을 금리인하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어 온 연준이 금리 인하에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졌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이 때문에 월가 전문가들은 연준 위원들이 연내 세 차례 인하 전망을 유지할지 아니면 두 차례 인하로 바꿀지에 관심을 집중해왔다.

연준 위원들은 이날 발표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3개월 만에 2.1%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기존의 2.4%로 유지했다. 물가상승률 둔화세가 기존 둔화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본 것은 최근 1~2월의 예상을 웃돈 물가 추이가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7일 연방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 둔화 확신을 갖게 될 지점이 멀지 않았다고

말해 이런 시각을 앞서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선 연준 구성원 일부가 과잉긴축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니 티마라 오스기자는 "회복력 있는 미국 경제 상황으로 인해 통화정책이 너무 긴축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잃었지만, 상황이 곧 바뀔 수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연준 인사들이 급격한 수요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민자 유입 증가 및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과 같은 일시적인 공급 측 요인 효과가 끝나면 긴축정책의 여파가 갑자기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파월 의장은 지난 1월 31일 FOMC 후 회견에서 "(공급 측 회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상황이 중단되면 (통화) 긴축 효과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패트릭 허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수요를 지탱했던 팬데믹 부양책의 '반짝 효과'도 힘을 잃고 있다고 진단하며 "최근 신용카드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소득 하위에서 중간 구간의 소비자들이 돈을 소진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했다.

전기차는 주춤...하이브리드는 급증

가격·수리비 등 경제적 이점 모델 수도 40% 증가 70여종



인기 하이브리드 모델인 도요타 프리우스.

소비자들의 전기차(EV) 구매가 주춤하면서 하이브리드차(HEV)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HEV 판매가 올해 첫 두 달 동안 50%나 증가해 13%에 그친 EV를 크게 앞섰다고 보도했다.

달러 판매 속도도 HEV는 평균 25일로 EV보다 3배, 개스차보다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HEV 인기 요인으로는 EV는 비싼 가격, 가정용 충전기 설치 비용, 높은 수리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 HEV 소유시 급전적 이점이 EV보다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폭스오도모티브는 지난 5년간 시판되는 HEV 모델수가 40% 증가한 70여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인들도 HEV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EV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USA투데이가 저렴한 HEV 추천 모델을 소개했다.

가격순으로 도요타 코롤라 HEV가 2만3500달러부터 시작해 가장 저

렴했다. 평가점수는 10점 만점에 7.4점을 기록했다.

이어 2만6250달러부터 시작하는 현대 엘란트라 HEV가 평점 8.3점을 기록했으며 2만6940달러인 기아 니로 HEV(평점 7.9점)와 2만7950달러 도요타 프리우스(평점 7.5점)가 뒤를 이었다.

도요타 코롤라 크로스 HEV(평점 7.1점, 2만8220달러), 현대 쏘나타 HEV(평점 8.6점, 2만8450달러), 기아 스포티지 HEV(평점 8.7점, 2만8590달러), 도요타 캠리 HEV(평점 8.5점, 2만8855달러), 도요타 RAV4 HEV(평점 8점, 3만1725달러), 현대 투싼 HEV(평점 8.8점, 3만2575달러) 등이 톱10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혼다 어코드 HEV(평점 8.4점, 3만2895달러), 도요타 프리우스 프라임(평점 8.1점, 3만2975달러) 등이 추천됐다.

박낙희 기자

'발암물질' 석면 사용금지... 35년 만에 퇴출

가루 호흡기 흡입시 폐암 유발 석면 노출로 매년 4만 명 사망

미국에서 발암물질인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연방환경보호청(EPA)은 지난 18일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일부 표백제 등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석면 사용 금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정비공들을 치명적인 석면 섬유에 노출시켜 온 석면 함유 브레이크 블록의 유입이 6개월 후 단계적으로 금지되며, 석면 패킹은 2년 후 사용이 중단된다.

연방 의원들의 요구로 1989년 처음으로 사용 중단 명령을 내린 지 35년 만에 국내에서 석면이 완전히 퇴출당한 것이다. 이번 금지 조치는 현재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석면을 철거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수입되는 석면에 적용된다. EPA는 성명을 통해 2016년 연방정부가 독성

화학물질을 규제하는 법안을 다시 한번 통과시키면서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고 밝혔다.

마이크 래건 EPA 청장은 "석면은 공중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발암물질로 완전 퇴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석면 사용 전면 금지 조치는 2047년까지 국내 암 사망자를 400만 명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캔서 문샷(Cancer Moonsho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조산업에서 환경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EPA에 따르면 석면은 내구성과 내열성 등이 뛰어나 건설 자재뿐만 아니라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와 라이닝 등 자동차 부품에 폭넓게 쓰였다. 브라질과 러시아에서 주로 수출되는 백석면은 미국 산업에서 유일하게 사용 중인 석면체다.

특히, 원자재 단가가 저렴해 제조업체와 건축 업계에서 담배 필터, 헤어드라이어 및 주택 단열

재, 비닐 바닥재, 페인트 등의 주재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염소와 수산화나트륨을 제조하는 염소알칼리 산업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석면은 천연섬유이지만 호흡을 통해 그 가루를 마시면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됐다. 이미 세계 50개국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한국도 2009년 1월부터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조와 수입,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EPA는 국내에서 석면 사용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감소했지만 석면 노출로 매년 4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고 전했다.

석면에 노출되면 폐암, 난소암, 대장암, 후두암 및 기타 암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은영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MD, VA & DC 턱관절 치료 위한 병원

턱관절 질환 치료하고 통증을 잡으세요.
턱관절의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치료가 이루어 집니다.

1. 진단과 X-Ray 분석
2. 턱관절 물리 치료
3. 교정치료 (Chiropractic Adjustment)
4. 주사 및 약물 치료 (Board Certified NP)
5. 장치 치료



Min Chiropractic & Rehabilitation
2000A Veirs Mill Rd., Unit A, Rockville, MD 20851 minchiro.com 301.279.6960

트럼프 '15주 이후 낙태금지' 지지 공식화

대선에서 여성의 낙태권이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공화당 후보로 낙점된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성향 매체인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낙태를 금지해야 할 임신주수를 묻는 말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나는 점점 더 15주에 대해서 듣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 방송 WA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낙태가 금지돼야 할 임신주수에 대해 "우리는 (그런) 시간을 제시할 것이고, 아마도 그 문제에서 나라 전체를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그는 "나는 어떤 숫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후 임신 15주 이후 낙태금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굳혔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낙태금지) 주수에 대해서 현재 사람들은 15주를 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다. 이건 매우 합리적인 결로 드러날 것"이라면서 "심지어 강경파들마저도 동의할 만큼 15주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숫자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연방대법원을 '6대3' 보수 우위로 재편한 덕분에 2022년 임신 6개월 전의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할 수 있었다며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워왔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정부 주도로 50개 주 전체에서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를 추진하는 데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같은 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들은 예상 밖의 고전을 겪었고,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 도전을 본격화한 이후 낙태 문제와 관련해선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왔다.

각 주정부와 주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뜻을 토대로 결정할 사안이지 중앙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란 것이다.

최근 시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대부분은 임신 초기 낙태시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낙태가 허용돼야 할 기간으로 15주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시술이 가능한 임신주수와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초 보수

아일랜드 버라드커 총리 갑자기 사의 표명

38세 최연소 총리 기록 동성결혼 합법화 직전 '커밍아웃'



권 당시 38세로 아일랜드 사상 최연소 총리로 취임했으며 아버지가 인도계로 첫 혼혈 총리이기도 하다. 그는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국민투표를 앞두고 동성애자임을 공개했다. 이 국민투표에 이어 2018년 낙태 금지를 철폐하는 국민투표 역시 통과됐다. 그는 사임 이유가 정치적이면서 개인적인 것이라고만 밝혔다.

리오 버라드커(사진) 아일랜드 총리가 후임 총리가 결정되는 대로 물러나겠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아일랜드공화당 대표로서 연정에서 2020~2022년 총리를 지낸 미셸 마틴 부총리가 전날 밤 소식을 들을 때까지 전혀 예상 못 했고 매우 놀랐다고 말할 정도로 버라드커 총리의 사임 결정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버라드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통일 아일랜드당 대표직에서 바로 사임하고 총리직에서는 후임자 선출 후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은 통일아일랜드 당내에서는 버라드커 총리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고 해석했다. 당 소속 의원 약 30%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바통을 넘겨줄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이 리더십의 일부"라며 "(당 대표로서) 7년이 지나 내가 이 자리에 최적임자라는 생각이 더는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 통일아일랜드당 대표를 맡아온 버라드커 총리는 2017~2020년 총리를 지낸 데 이어 2022년 12월 다시 아일랜드공화당·통일아일랜드당·녹색당 연립 정부의 총리로 취임했다.

현재 45세인 버라드커 총리는 1기 집

멕시코 "추방 이민자 안받아"

대선 앞둔 미국에 '유연정책' 압박



11월 미국 대선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서류 미비(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으로 볼 수 있는 멕시코가 미국에 유연한 정책 채택을 압박하고 나섰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70·사진) 멕시코 대통령은 2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불법 입국자를 텍사스주에서 직권으로 추방할 수 있게 한 이민법 SB4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우리는 텍사스에서 추방되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SB4에 대해 "가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불공정"하다고 꼬집은 뒤 "국제법 위반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 미 당국자들이 (성경의) 이 뜻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망각한 듯한 불의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는 연방 항소법원에서 법 시행 효력을 일시 보류하고 본안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우리 외교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나는 어떤 숫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후 임신 15주 이후 낙태금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굳혔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과테말라와 파나마, 콜롬비아 등 중남미 주요국 정상과 미국을 겨냥한 '압박 연대'를 구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는 불법으로

비트코인 일주일간 고점 대비 17% ↓

고공 행진을 이어가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일주일 만에 고점 대비 20% 가까이 급락하며 주춤하고 있다.

이때 비트코인 가격은 끌어올리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이 줄어들고, 급격한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20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이날 낮 12시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74% 내린 6만3천552달러에 거래됐다.

가상화폐 리서치 기관인 비트맥스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8일 하루 동안 현물 ETF는 총 1억5천440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ETF가 순유출을 기록한 것은 지난 1일 이후 처음이다.

지난 13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 7만3천800달러대보다 1만 달러 이상 하락한 것이다. 비트코인은 이날 6만700달러대까지 내려가 6만 달러선을 위협하

기도 했다. 일주일 만에 약 17% 급락한 수치다. 연일 치솟던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물가지표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4일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자동차노조 이어 철강노조도 바이든 재선 지지 선언

미국철강노조(USW)가 20일 재선에 도전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법을 통해 노조가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전국에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약속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USW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USW는 오늘 자랑스럽게 조 바이든의 대통령 재선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맥콜 회장은 또 "그(바이든)는 미국인의 은퇴 후 사회 안전망을 보호하는데 굳은 심지를 지속적으로 보였고, 사회보장과 메디케어(고령자 등 취약층을 위한 공공의료보험)에 대한 공격을 막아냈다"고 칭찬했다.

데이비드 맥콜 USW 인터내셔널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몇 번이고 자신이 노동자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그의 비전과 리더십은 우리나라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접근성을 강화하고, 중산층을 성장시키며, 광범위한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11월 대선 리턴매치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지지를 얻은 데 이어 잇달아 주요 노조의 지지를 확보했다.

맥콜 회장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다른 친노동자 입

특히 바이든 대통령 캠프로서는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북동부 공

업지대)의 경합주인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에서 표심을 얻는 데 있어 노조의 지지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으로 평가받은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월가가 이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중산층이 이 나라를 만들었고, 노조가 중산층을 만들었다"고 역설하는 등 최근 잇달아 자신의 주요 지지층인 노조와 중산층에 친화적인 입장과 정책을 내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는 일본 제철의 US스틸 인수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는데, 이는 대선을 앞두고 철강 노조의 표심을 의식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영어 성경 아카데미

영어 때문에 미국에서 삶이 힘들다고 생각되십니까?
여기에 놀라운 길이 있습니다.

영어를 말하고 듣는 능력 뿐만 아니라 읽고 더 나아가 쓰기까지 습득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영어성경 아카데미를 소개합니다.

영어 성경(New International Version)을 통하여 삶에 필요한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 도전해 보십시오.

◆ 시간: 매주 화요일 오전 9:30~11:30
(4월 2일부터 시작)

◆ 장소: 사랑과 진리의 교회
3527 Gallows Rd.
Falls Church, VA 22042

◆ 전화: 202-714-1100

◆ 강사: 서 규원 목사



3527 Gallows Road, Falls Church, VA 22042
202-714-1100 / www.lovetruthchurch.org

LOTTE PLAZA market

물가안정
52탄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MAR. 21st - MAR. 28th, 2024

바다맛의 최강

바다맛을 대표하는~

★ 씨푸드 ✕ 맛대결 ★

담백하고 부드러운 흰살의 참조기 vs 상큼하고 오독오독한 식감의 전복



참조기 박스 10LB
Yellow Croaker (300-400)

~~\$4499~~
\$2999
BOX

VS

자숙 냉동전복 228g

Frozen Cooked Whole Abalone (40-50)

~~\$1199~~
\$599
BOX



편집 중 오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사정에 따라 조기종료 또는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Sterling, VA
30 Ridgeway Hill Dr., Sterling,
VA 20155

Centreville, VA
59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Chantilly, VA
13955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Annandale, VA
5204 P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43930 Farmwell Hunt Plaza,
Ashburn, VA 20147

Herndon, VA
4600 Sabin Street,
Herndon, VA 20130

Ellicott City, MD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Catonsville, MD
60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Rockville, MD
1902 Veirs Mill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Silver Spring, MD
13025 4 George Ave.,
Silver Spring, MD 20906

백악관, 자국 기업 인텔에 파격 보조금... 예상치의 2배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자국 반도체 제조업체 인텔에 최대 195억 달러에 육박하는 자금을 지원한다.

백악관은 20일 성명에서 "상무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최대 85억 달러의 직접 자금과 대출 11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예비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업계에서 예상(100억 달러 이상)하던 것보다 많은 액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애리조나주 캔들러를 방문해 이를 발표했다.

백악관은 "반도체는 미국에서 발명돼 휴대폰부터 전기자동차, 냉장고, 인공지능, 방위 시스템까지 모든 것에

힘을 불어넣었지만 오늘날 미국은 세계 반도체의 10% 미만을 생산하며 최첨단 반도체는 일질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로 애리조나·오하이오·뉴멕시코·오리건 주에 있는 인텔 시설의 건설과 확장을 지원하여 약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만 개의 간접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라며 "오늘과 같은 반도체 투자 덕분에 미국은 10년 내에 세계 첨단 칩의 20%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미국에 투자한 삼성전자에도 반도체법에 따라 6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반도체 보조금·대출 26조원 지원
"미국 내 생산 20% 목표" 중국 겨냥
삼성전자 보조금은 8조원대 예상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4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이달 말께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 상무부가 대만 반도체업체 TSMC에 대해서도 5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 지원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도체 업계에선 투자 규모가 큰 삼성전자·인텔·TSMC가 전체 보조금의 40% 이상을 받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들여 공장을 짓고 있고, 인텔은 오하이오에 20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는 등 미국에서만

반도체 제조에 435억 달러를 쏟아부을 계획이다. TSMC는 400억 달러를 들여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 2개를 짓고 있다.

반도체법은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2022년 제정됐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총 390억 달러, 연구개발(R&D) 지원금으로 총 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은 자국이 중국 등에 뒤지면서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나왔다.

백일현 기자

'이중보안법' 갇힌 홍콩... "여행객·기업인 주의"

'홍콩판 보안법' 만장일치 통과
23일부터 외국 간섭도 처벌 대상
4년 전 중국 법안보다 수위 높아

홍콩 입법회(의회)가 19일 스파이 행위 등을 단속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안보유지법안(국가안보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20년 6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국내법으로 제정·발효한 홍콩국가보안법에 이어 홍콩 정부의 법안까지 시행되면서 홍콩은 '이중 국가보안법'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은 중국 본토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홍콩의 기업 활동이 향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기업과 관광객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안보법은 반역, 내란, 내란·반란 선동 행위, 국가기밀·간첩 관련 범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파괴

행위, 해외 간섭 등 9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란죄와 반역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무기징역, 공개적으로 의도를 밝힌 반역죄는 14년의 징역, 선동죄는 7년의 징역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범죄가 외국이나 외국 세력과 결합한 경우 형량이 가중되어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중국 정부가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이 '외국 세력과의 결합'을 범죄로 단속한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번엔 홍콩 의회를 통과한 법은 의도를 품은 '간섭' 행위부터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외국의 개인이나 조직을 직접 표적으로 삼았다고 풀이했다.

지난 11일 폐막한 중국 전인대에서 법안의 조기 제정을 지시했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중국 지도부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사회 안정을 어느 때보다 중시하고 있으며, '일국양제(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에 따라 대외 개방된 홍콩이 반중 외국

세력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대만은 법 통과 직후 홍콩에서의 기업 활동과 관광에 주의를 당부했다. 잔즈홍(詹志宏) 대만-홍콩 경제문화협력카운슬 이사장은 "홍콩 당국의 설명이 구체적이지도, 분명하지도 않아 법을 위반했는지, 법을 위반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홍콩에서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외국인의 홍콩 여행과 비즈니스가 모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14년 징역까지 판결이 가능한 외세 개입 범죄 부분에서는 심크랭크 간 협력에 해외 세력과의 협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단트 파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논의부터 승인까지 50일 만에 통과된 법안을 두고 "한 때 개방적이던 홍콩의 폐쇄가 더 빨라질 것"이라며 "외부 간섭" 등 여러 문구가 상당히 모호하다"고 말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김민정 기자



폭발물 탐지 로봇·경찰견 공조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문화부 건물 앞에서 조우한 원격 조종 로봇과 복제 경찰견 '올림피아'. 이탈리아 당국은 문화부 건물 폭탄 테러 위협에 직원들을 대피시킨 뒤 폭발물 탐지·제거 작업을 위해 이들을 동원했다. [EPA=연합뉴스]

폴란드 외무 "서방 병력의 우크라이나 주둔은 공공연한 비밀"

"파병은 각자 결정할 일... 폴란드는 맨 마지막"

서방 군대 병력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이미 주둔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사진) 폴란드 외무장관이 주장했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20일(현지시간) dpa통신과 인터뷰에서 "총리가 말했듯 큰 나라들의 군대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리를 언급한 발언의 의미

를 묻자 "폴란드어에 모두가 아는 비밀을 뜻하는 '타옌니차 폴리스넬라'(Tajemnica Poliszynela)라는 말이 있다"고 답했다.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는 지난달 타우리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표적 조절을 위해 하는 일을 독일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영국·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

한 자국 미사일 운용을 위해 지상군을 배치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었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의해 불붙은 파병 논란에 관해선 결정은 개별 국가에 달려 있다며 "프랑스가 결정한다면 독자적으로 실행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폴란드군 파병에는 역사적 이유를 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는 400년 동안 한 나라였다. 러시아에 너무 쉬운 선전 도구가 될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타우리스 지원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가 (러시아 영토로부터) 멀리 배치할 것"이라며 독일 정부를 압박했다. 솔츠 총리는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타우리스로 러시아 영토를 타격해 전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1년 가까이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폴란드가 있어 독일 입장에서는 침략에 대응할 시간이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역외영토 칼리닌 그라드에 베를린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있다"며 "안보 상황을 다시 살펴보고"고 경고했다.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다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다운 회계법인



조동구 공인회계사
Eddie Cho, CPA

- 회계 업무
- 신규사업 등록
- 세무감사 대변
- 세무 보고
- Payroll Service

*** Text, Fax, Email 로도 세금보고 접수를 받습니다.**

VA Text / Phone: 703-637-2006
7535 Little River Tpke. #325B
Annandale, VA 22003

MD Text / Phone: 410-787-9077
8600 Snowden River Pkwy. #300
Columbia, MD 21045

Fax: 410-787-6686 Email: echo@daoncpas.com, eddiehocpa@gmail.com

CUCKOO

쿠쿠 3월 행복 MARCH 프로모션

기간 | 02.27.2024 - 03.26.2024 조건 | 기간 내 주문 & 3월 내 설치



증정품



복수 렌탈/구매 시 쿠쿠 베스트셀러 밥솥 증정!

2건 이상 시 CR-0641F 3건 이상 시 CRP-ST0609F

1

베스트셀러 정수기 특별 프로모션



일시불
~~\$1,499~~ **\$1,399**

렌탈시
다운페이 **\$100 할인**
렌탈료 매월 **\$10 할인**
(3년 & 다운페이 100불 구간 기준)

2

일시불 제품 Buy One Get One 50%



* 복수 구매시, MAX. 1대에 한하여 50% OFF 적용, 최 저가 제품에 할인 적용
(예시, 3대 구매 고객: 1ST, 2ND=>정상가 / 3RD=>50% OFF)
* 동일 계약자(1번조건) OR 동일 설치처(2번조건) 중 1가지 이상 적용시 동일 계약으로 간주 MAX. 1대 적용

3

렌탈 전 제품 다운페이 \$100 할인



* 렌탈 전제품 대상 DP \$100 / \$200 구간 적용
* (DP \$0 구간 고객은 VISA GIFT CARD 발송)

4

안마의자 신제품 출시기념



최대
\$2,500 할인
+
LED MASK
사은품 증정

사은품

CBD-AM106W
\$799
상당

Virginia

K마켓 Annandale 240-595-2257

하이트론즈 Centreville 571-404-4132

리빙스토리 Centreville 703-975-1313

건강마을 Centreville 703-712-7116

Maryland

롯데마트 Ellicott City 410-750-8011

힐링마을 Ellicott City 443-878-9010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선물당 고객 최대 1개 증정

쿠쿠 제품 구입 및 서비스 문의 | 888.700.0425 쿠쿠 공식 웹사이트 cuckoorental.com | cuckooamerica.com

“트럼프,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경제 대통령”

▶ 1면 ‘도널드’에서 이어집니다.

-실업률은 3~4%로 안정적인 수준 아닌가. “고용지표도 마찬가지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전지출(실업수당이나 재해보상금, 사회보장기부금 등)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직장을 관두고 노동시장에서 떠났다. 그래서 실업률이 낮아진 것뿐이다. 이때 노동시장을 떠난 사람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단순히 실업률만 따져서 노동시장이 좋아졌다는 말은 터무니없다.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이 사라진 건 최악의 상황이다.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은 매우 나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는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어난 2020년과 비교해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미 연준은 언제 기준금리를 인하할까. “인하 시점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만은 분명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좋은 사람이지만, 폴 볼커(1979~87년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1987~2006년 연준 의장)과 같은 통화 정책 전문가가 아니다. 그는 자질이 없다. 파월은 주로 직원에게 통화 정책 관련 조언을 구한다. 폴 볼커의 경우 늘 직원에게(시장에 혼란이 없게)



결정을 내린 뒤 통보했다. 파월의 업무 방식은 크게 잘못됐다.”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거라 보나. “트럼프에 대해 사람들의 호불호가 갈리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지금은 경제학자로서, 경제에 관해서만 얘기할 뿐이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경제 대통령이다. 이는 ‘나의 사랑(love of life)’ 로널드 레이건을 포함해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기 전까지 3년의 트럼프 임기 중 미국 경제의 발전상은 눈부실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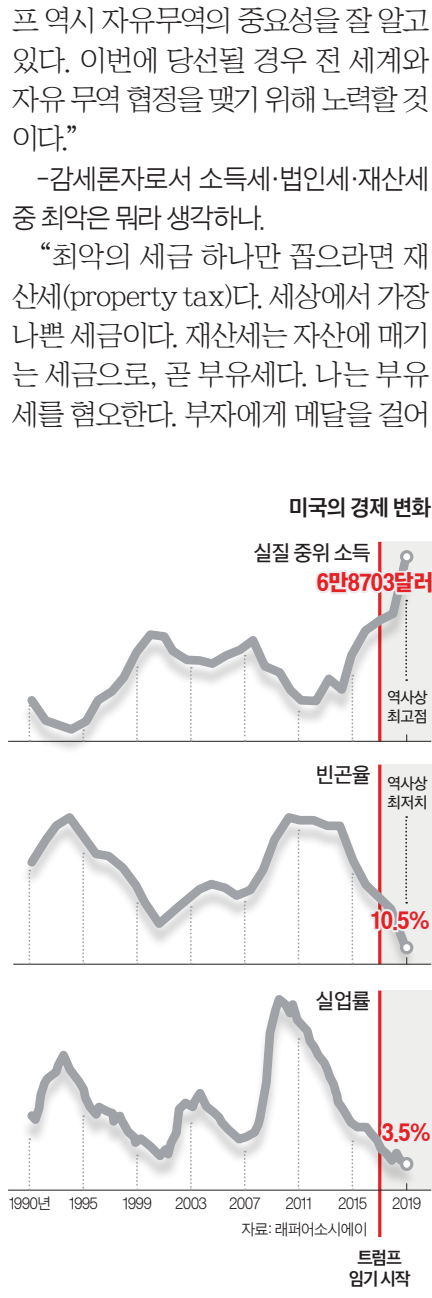
-레이건의 남자가 좀 의외다. “난 그의 경제학자였고, 완전한 레이건의 남자(Reagan guy)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경제 성장 면에서 단연코 1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트럼프는 2017년 개정한 일명 ‘트럼프 세법(Tax Cuts and Jobs Act)’을 통해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췄다. 개인 소득세는 39.6%에서 37%로 줄였다. 이후 미국의 성장 속도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을 넘어설 정도로 빨라졌다. 덕분에 세수도 늘어났다. 트럼프가 세율을 낮춘 이후로 2년간 미국 세수 평균치

는 직전 2년과 비교해 10%가량 증가했다. 세율을 낮추니 오히려 세수가 늘어난 것이다. 이 뿐이 아니다. 불평등도 개선됐다. 흑인과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의 실업률은 역사상 최저치로 떨어졌고, 미국의 빈곤율 역시 10.5%(2019년)로 역사상 최저점을 찍었다. 이러한 불평등 수치들이 현재 모두 악화된 상황이다.”

-감세를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나는 학자다. 어떤 사안에 대한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치로 증명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그래서 나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데이터를 내놓는 거다. 데이터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감세가 어떤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지, 어딘가이라도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트럼프가 복귀하면 다시 감세 정책을 추진할까.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 다만, 그는 첫 번째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세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통화 정책 면에서 개혁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현재 파월의 행보를 마뜩잖게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는 자유무역협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을 일으킨 게 트럼프인데. “그렇다. 당시 중국과의 갈등과 보호무역주의의 기조는 잘못됐다. 앞으로 이 부분은 달라질 것으로 본다. 트럼



주진 못할 망정 왜 패널티를 주나. 국가의 부와 번영을 가로막는 최악의 방법이다. 경제학의 핵심은 동기(인센티브)다.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해서 다섯 가지가 필요하다. ▶낮은 세율 ▶최소한의 규제 ▶재정지출 제한 ▶건전한 통화정책 그리고 ▶자유무역이다. 이 다섯 가지 요소만 지키면 어느 국가나 부유해질 수 있다.”

배정원 기자

아서 래퍼
Arthur Laffer

- 1940 미국 오하이오주 영스타운 출생
- 1963 예일대 경제학 학사
- 1965 스탠퍼드대 경영학 석사
- 1967 시카고대 교수
- 1970 백악관 예산국(OMB) 수석 이코노미스트
- 1972 스탠퍼드대 경제학 박사
- 1976 USC 교수
- 1979 래퍼 어소시에이츠 설립
- 1980 레이건 행정부 경제 자문
- 2016 트럼프 대선 캠프 경제 고문

래퍼 곡선(Laffer curve)

세율이 증가할 때 조세수입은 정점에 이른 후 다시 하락한다는 내용의 이론

조세 수입

세율(%)

“선진국, 자국 중심 산업정책으로 회귀” OECD·IMF도 인정

워싱턴 컨센서스의 종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 많아져 미국, 칩사법·IRA 등 잇따라 내놔 EU·중국 등 앞다퉀 산업정책 발표

세계 각국에서 ‘산업정책’으로의 회귀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산업정책이란 특정 산업에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이뤄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의미한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첨예화하면서 1980년대 이후 사실상 사라졌던 ‘큰 정부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산업정책의 회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2500개가 넘는 산업정책이 쏟아졌다. 앞서 한국은행은 “매년 신규 도입되는 전 세계 산업정책 건수가 2010~2019년 연평균 250건 수준에서 2021~2022년 연평균 1600건 정도로 많이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때와 비교해 1.6배가 더 늘어났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성장 초기 단계인 신흥국에서 주로 꺼내 들던 산업정책 카드를 이젠 선진국에서 앞다퉀 내 놓고 있다는 점이다. IMF는 “지난해 전체 산업정책의 48%가 미국과 유럽연합(EU)·중국에서 나왔다”며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산업정책 활용에 더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IMF보다 한발 앞서 ‘산업정책의 귀환’이란 보고서를 냈다. OECD는 ▶글로벌 경제 위기 ▶제조업 고용 감소 등 세계화



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를 전면에 내세워왔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 제조업과 중산층 붕괴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워싱턴 컨센서스에 구멍이 뚫렸다는 경고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조 바이든 정부의 핵심 참모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4월 27일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에서 “미국 제조업에 큰 타격을 준 ‘차이나 쇼크’의 영향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며 새로운 국제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워싱턴 컨센서스의 종말을 예고한 것이다.

실제 바이든 정부는 560억 달러 규모의 칩사법(CHIPS Act)과 271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자국 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담은 산업정책을 내세웠다.

다른 주요국도 줄줄이 산업정책으

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EU는 ‘EU 반도체법’을 제정해 2030년까지 반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 달성을 위해 430억 유로를 투입하겠다고 했고, 중국은 일찍이 ‘제조 2025’를 통해 2025년까지 제조업 핵심 기술 및 부품·소재의 70%를 자급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도 미국 변화에 대응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공급망 기본법’ 등 산업정책을 잇달아 제시하고 있지만,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이외에 새로운 먹거리 발굴이 필요한데 한국은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과거의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우림 기자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 개런티 이자
/ 단기 (3년, 5년, 7년)
/ 복리 이자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5.30%	5.30%
\$300,000	\$115,597	\$129,461	\$143,548
	4.95%	5.30%	5.30%
	\$346,791	\$388,3853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앤디 김

VA Lic# 639047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저세교정 운동 (축만중, 후만중)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들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웬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또 그래?

위통 속쓰림 소화불량

지치고 힘든 위장을 위하여
위에 좋은 성분만 가득 담았습니다!

청정지역 오키나와 미야코 섬에 있는 우메켄 직영농장에서 재배한 제도아리(자색강황)는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되었으며 위장 건강에 탁월한 발효 양배추, 여주, 생강 및 5가지 약초가 함유되어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도아리로 당신의 위장이 튼튼해지면 당신의 하루도 튼튼해집니다!*

- 제도아리 (자색강황)
- 발효 양배추
- 여주
- 생강
- 5가지 위장에 특화된 약초



우메켄 오키나와 제도아리(정)

위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한
우메켄 오키나와 제도아리

오키나와 제도아리로 위장은 건강하리!*

이런 분들 꼭 드세요!

- 배앓이와 위장 경련이 심한 분
- 위장장애로 트림, 구취가 심한 분
- 습관적 구토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
- 쉽게 식중독에 잘 걸리는 분
- 소화 불량과 위통으로 고생하는 분

같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빠르고 시원하게~ 우메켄 소화효소!

5대 소화효소 함유

- 지방 분해 리파아제
- 단백질 분해 프로테아제
- 섬유소 분해 셀룰라아제
- 탄수화물 분해 아밀라아제
- 유제품 분해 락타아제



쉽게 체하고 속이 늘 더부룩하며 위산과다, 식후 무기력증이 심한 것은 몸속에 부족한 소화효소!

위, 소화를 위한 효소 총집합
우메켄 소화효소(과립)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1639 vs 0 ... 의대증원, 지역의료 힘 실었다

(비수도권) (서울)

정부, 2000명 대학별 배정결과 발표
거점국립대 7곳, 200명으로 정원 ↑

교육부가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 7곳의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등 의대 증원 2000명의 대학별 배정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증원 인원의 82%(1639명)가 비수도권 대학에, 18%(361명)가 경인 지역에 배정됐다. 서울시에 있는 8개 대학은 증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 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고 배정 기준을 밝혔다.

교육부는 3대 배정 기준으로 ▶의료 격차 해소 ▶지역 필수의료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 거점 국립대 정원 200명 확보 ▶소규모 의대 총정원 100명 수준 배정 등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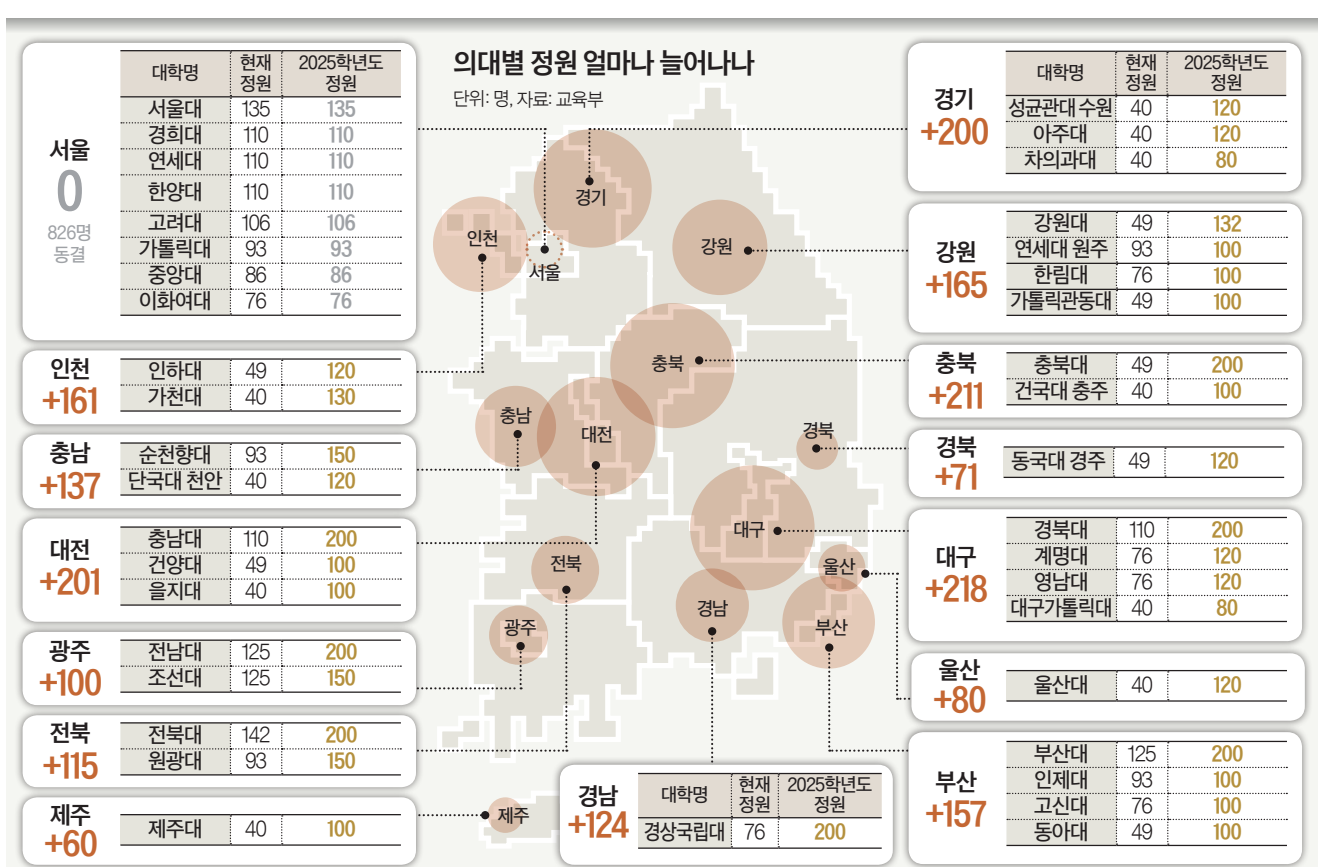
정원이 200명이 된 지역 거점 국립

대의는 경북대(현 정원 110명), 경상국립대(76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전남대(125명), 충북대(49명), 충남대(110명) 등이다. 기존 정원이 49명으로 ‘미니 의대’라 불리던 제주대와 강원대도 각각 100명, 132명으로 정원이 확대된다.

원광대, 조선대, 순천향대 등 중형 사립대도 150명으로 정원이 늘었다. 정원 40명 내외의 나머지 지역 소규모 사립대도 100명 규모로 커진다.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고신대, 동아대, 건국대(분교), 건양대, 을지대 등이다. 유일한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기존 40명)도 80명으로 정원이 늘었다. 수도권 의대에서는 경인 지역 5곳에만 정원이 배분됐다. 성균관대(기존 40명), 아주대(40명), 인하대(49명)는 모두 120명으로, 가천대(40명)는 130명으로 증가한다. 서울대(135명), 가톨릭대(93명), 경희대(110명), 고려대(106명), 연세대(110명), 이화여대(76명), 중앙대(86명), 한양대(110명) 등 서울시의 8개 의대는 정원이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OECD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이 3.61명인 반면, 경기와 인천은 각각 1.8명, 1.89명인 현실을 반영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도 서울이 0.9명인 반면, 경기와 인천은 각각 0.1명, 0.3명이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료개혁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00



년의 (의대 정원 감축)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며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에 의대 신설을 신속히 검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들에게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달라. 대학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다”고 복귀를 요청하고, 의대 교수들에게도 “제자들을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

까지 대학별 증원 신청을 받은 후 정원 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별 분배 규모를 확정했다. 총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난다. 비수도권 27개교 정원은 2023명에서 1639명 늘어난 3662명(72.4%)으로 증가한다. 수도권 13개교 정원은 1035명에서 361명 늘어 1396명(27.6%)이 된다.

교육부는 이어 “현 정원 대비 큰 폭으로 증원되는 의대는 전임교원 확충, 시설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 의대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하고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립대는 수요조

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등 자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증원 배정 발표에 따라 각 대학은 정원 변경을 위한 학칙을 변경하고, 다음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정원 변경 사항을 신청하게 된다. 대교협이 이를 승인하면 오는 5월 모집요강 발표를 끝으로 정원이 확정된다. 올해 대학입시부터 이번 배정된 정원이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가 인력 수급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정원은 대학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배분 결과를 발표할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서울에 있는 8개 대학은 증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뉴스1]

“정부, 대못 박았다”... 의협, 정권 퇴진운동 거론

정부가 20일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 2000명 정원 배분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대못을 박았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의대 교수 집단사직 카드에도 정부가 발표를 강행하면서 증원 규모를 둘러싼 협상의 여지가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는 정권 퇴진 운동까지 거론했고, 정부는 장기전 체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부가 이날 오후 수도권 18%(361명)-비수도권 82%(1639명) 배분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자 의사 커뮤니티에선 “총선용 정책이다” “퇴로

를 막았다” 등 비판이 쏟아졌다. 대한의사회(의협) 간부들의 발언 수위는 높아졌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오늘부터 14만 의사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치권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필수의료는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도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 없는 독단적 결정을 정의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그간의 모든 조치를 철

회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 현장의 파탄을 막아 달라”고 촉구했다. 연세대 의대는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수용 불가 성명을 냈다.

전공의 복귀 가능성이 작아진 만큼 사직서 제출일로 예고한 25일을 기점으로 의대 교수 일부 이탈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빅5’ 병원의 한 교수는 “전공의들이 돌아올 다리가 끊어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진료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육체적·정신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 사직하려는 교수들이 줄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계는 줄곧 지적했던 부실교육 우려를 재차 제기했다. 갑자기 늘어난 학생을 교육할 교수,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해 교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배정환 충북대병원-의대 비대위원장은 “기존 50명 정원에서 6~8명씩 8조 정도로 나뉘었을 때도 (실습교육을) 교수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다”며 “교수를 네 배로 늘리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충북대는 정원이 4배가 돼 증원 폭이 가장 크다.

정부가 비수도권 9곳 거점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1000명가량 증원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배정환 교수는 “의대 교수를 늘리지만 인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금 교수를 전임교수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기금 교수와 임상 교

수는 이미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밀한 후속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 졸업생이 해당 지역에서 수련받고 실제 정착할 수 있게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찬수 한국외국어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협회(KAMC) 이사장은 “현재는 (지역 정착을 유도할) 장치가 불안정하다”며 “비수도권에서 학생을 배출해도 수도권에서 수련받고 수도권에서 개업하는 걸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외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외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3개 단체는 온라인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이 모두 모인 건 사태 시작 후 처음이다.

황수연·채혜선 기자



맞춤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김철민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 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아시아나항공, 델타항공, 중국국제항공, 에미레이트항공, 한진항공, 에어캐나다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한국유심 판매 \$45
 유럽유심 판매 \$50

배송공고 버스투어 가이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 ce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Korea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한국방문의 모든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다녀오신 분들이 적극 추천하는 여행!
 2024년 31년 전통 **탑여행사**가 아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직접 모시고 갑니다.

최고급 럭셔리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항공

1차 출발 4/16-4/26 2차 출발 6/18-6/28 (영어가이드)
 3차 출발 9/17-9/27 4차 출발 10/15-10/25
 5차 출발 10/22-11/1 (단풍특선)

특전 1. 워싱턴 최초 디렉스 28인승, 34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2.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 / 외도+해금강유람선 / 정동진 레일바이크 / 서귀포 유람선
 3. 최고급 호텔 숙박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서울 롯데호텔 / 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 / 여수 소노캄 / 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 / 경주 라한셀레트 / 속초 롯데리조트 / 제주 롯데호텔
 4.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고국 1~5차 모두 제주 빼고 다낭이나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고국+제주/다낭/일본 원하시는 일정으로 선택 가능.

4/16~4/26	고품격 고국일주 1차	10박11일 \$2990+항공
4/22~5/02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4/22~5/05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4390+항공
4/22~4/30	정통 동유럽 8박9일	\$3290+항공
4/24~5/05	호주&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4/29~5/05	크로아티아 발칸 6박7일	\$2890+항공
5/03~5/12	바르셀로나&지중해 크루즈	9박10일 \$4390+항공
5/06~5/16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5/07~5/17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190+항공
5/21~6/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13일	\$3890+항공
5/24~5/27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6/04~6/12	아이슬란드 일주 8박9일	\$5690+항공
6/18~6/26	스위스 알프스 일주 8박9일	\$3990+항공
6/18~6/28	고품격 고국일주 2차	10박11일 \$2990+항공
6/28~7/08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6/3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5박6일 \$2290(항공포함)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8/06~8/19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14일 \$5990+항공
8/09~8/19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8/14~8/19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6일 \$2290(항공포함)
8/15~8/21	알래스카 일주 6박7일	\$2990(항공포함)
8/30~9/06	알래스카 크루즈 7박8일	인사이드 \$1990(항공포함), 발코니 \$2590(항공포함)
8/30~9/02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9/02~9/13	영국일주 11박12일	\$5890+항공
9/10~9/20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9/17~9/27	고품격 고국일주 3차	10박11일 \$2990+항공
9/17~9/30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4390+항공
9/17~9/25	정통 동유럽 8박9일	\$3290+항공
9/24~9/30	크로아티아 발칸 6박7일	\$2890+항공
9/25~10/5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10/03~10/16	독일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08~10/18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1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10/15~10/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11일 2990+항공
10/17~10/30	프랑스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17~10/26	캐나다&뉴잉글랜드 크루즈	9박10일 \$1190(인사이드)
10/22~10/31	터키 성지순례 (소아시아 7교회)	9박10일 요금문의
10/22~11/01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박11일 2990+항공
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11일	요금문의
11/12~11/25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13박14일(사내산) \$3980+항공
11/15~11/25	이스라엘&요르단	10박11일 \$2980+항공
11/27~12/01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5일 \$1190+항공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13일 \$1390(인사이드)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6일 \$23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7일 \$23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와 동남아, 일본 여행을 한번에!

1차	2차	3차	4차
다낭 3박+고국 7박	일본 3박+고국 7박	다낭 3박+고국 7박	다낭 3박+고국 7박
5/18-5/29 (노을선)	5/21-6/1	11/9-11/20 (노을선)	11/12-11/23
\$3090+항공	\$3590+항공	\$3090+항공	\$3590+항공

연합상품

- 3박4일 **서남권** \$899+항공 **일출발**
- 4박5일 **동해권** \$999+항공 **금출발**
- 5박6일 **서남+제주** \$1499+항공 **일출발**
- 10박11일 **전국일주** \$2149+항공 **일출발**

3박4일 **동경** \$999+항공
 3박5일 **오사카** \$999+항공
 8박9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TMCI 고국 건강검진
 Total Medicare Connection Institute

-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700/여 \$750, 미국국적 남 \$910/여 \$975
-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 여 113만원
-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현대아산병원/서울대병원/가천대길병원

내 피부에 젊음과 활기를 가져다줄
뷰티관광

GLOVI 관리와 성형을 함께
 울써라 100만원~
 눈트임 160만원

W MEDI WIN 국내 최고의 병원 제휴!
 비노기과, 안과
 치과, 한방병원 등

한국 왕복 비용으로 대한항공 항공권+동남아 여행이 가능합니다!

동남아 여행	방콕/파타야	푸켓	하노이/하롱베이	다낭	대만	싱가폴
3박5일 \$5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맛포차, 콜로세움, 파티아 아시아, 산호섬, 전통수상시장, 플로타마켓, 황금절벽사원, 코끼리 트래킹, 악어농장 백만년위공원, 태국특산물	3박5일 \$599+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팡이만 해양국립공원 아프로드테스, 파동 아시아 피피섬, 워킹홀리데이 코끼리 트래킹	3박5일 \$5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하노이, 엔드, 하롱베이 하롱데미파크, 호치민영모 생활관, 비단광장, 한가동사원 수상인형극	3박5일 \$499+항공 출발: 격주 일요일 마블마운틴, 호이안, 투분강 일본대원고, 갠가사당, 풍물의집 광조관, 바나 국립공원 후에성, 티엔무사원, 신짜사원 다낭대성당	3박4일 \$6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국립고궁박물관, 자오궁, 101빌딩 라오하게 아시아, 서문경거리, 태로신협곡, 화현 참성단 해변, 일월담, 구족문화촌, 아류해양 국립공원, 자우면거리	3박5일 \$7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국립박물관, 가든스 바이더 베이, 리버월드, 핸드스 웨이더 브릿지, 허지레인, 부기스캐시마켓, 머라이언공원, 차이나타운, 센토사섬, 실로소비터	

토요 특선 당일 투어

- 필라델피아 4월 6일 \$99
- 네추럴 브릿지+사파리 5월 4일 \$125
- NY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센트럴 파크 6월 22일 \$99
- 노퍽 보타니컬 가든 7월 20일 \$109
- 워싱턴 벚꽃길 도보여행 \$89 (4인 이상 수시 출발)
- 상대의 벚꽃 런치 크루즈 3월 29일, \$189
- 성극 **대니얼** \$199 5/16, 5/30

탑여행사 **미동부관광**

- 미동부** 나이가가라/토론토
천성/몬트리올/퀘벡
플래츠버그/뉴욕
5박6일 \$1350
- 뉴욕** 핵심적인 동부 명소만 쏙쏙
나이아가라
2박3일 \$650
- 뉴욕 브루클린** 미동부 베스트셀러
나이아가라
3박4일 \$899
- 뉴욕** 1박2일 \$399
-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도궁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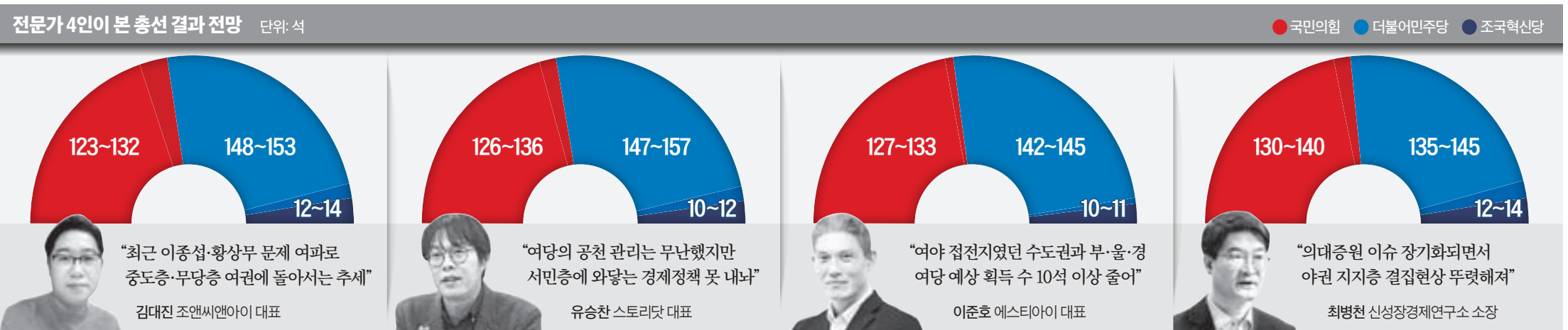
탑여행사 **미서부관광**

- 서부 4대 캐년** 5박6일 \$990+항공 매주 일
- 5대 캐년+세도나** 6박7일 \$1300+항공 매주 일
-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6일 \$990+항공 매주 수
- 옐로스톤 3박4일** \$890+항공
- 캐나다 록키 4박5일** \$1090+항공

탑여행사의 자랑
미서부 일주 서부지역의 주요 도시들과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9일 \$145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지금대로면 민주당 1당... 한동훈의 시간 다시 올까가 변수”



정치 전문가 4인이 본 총선 판세

총선이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유난히 예측이 어렵다는 게 여의도 반응이다. 올해만 해도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 민주당의 ‘비명횡사’ 공천 파동,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등 이슈가 쏟아지면서 정국도 출렁였다. 총선을 20일 남긴 현재 시점에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여론조사 전문가와 정치 컨설턴트 등 전문가 4인에게 물어봤다.

전문가 4인이 현재 총선 판세를 바



오늘부터 총선 후보자 등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둔 20일 경기도 여주의 한 업체에서 직원들이 선거 유세 홍보 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뉴시스]

라보는 시각은 비슷했다. 예상 의석수는 국민의힘 123~140석, 더불어민주당 135~157석, 조국혁신당 10~14석, 개혁신당 2~4석 등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이대로라면 민주당이 1당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은 일치했다.

국민의힘 최소 123석, 조국혁신당 10석 전망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연초 『이기는 정치학』을 내면서 국민의힘이 144석을, 민주당이 139석가량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 소장은 “현재 추이가 이어지면 비례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은 130석대 후반,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에 조금 못 미치는 140석대 후반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을 수정했다.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논란 등 여권발 약제가 확산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도층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2월 중순만 해도 여당이 과반을 획득하는 분위기였다”며 “하지만 지금은 승부처인 한강벨트에서 당초 여당의 낙승이 점쳐진 동작갑·을도 혼전으로 바뀌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여권에 호재로 작용하던 의대 증원 이슈도 장기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관에 재등장했고, 정권 심판론으로 인한 야권의 지지층 결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주 전 “여당이 과반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한 데이터 분석가 유승찬 스트리트 대표도 “민주당의 150석대 초반 획득이 유력해졌다”고 전망을 달리 했다. 그는 “여당의 공천 관리는 무난했다”면서도 “이제는 공천의 시간이 끝나고 정책과 이슈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상 총선이 있는 해에는 확대 재정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긴축 재정을 했다. 지금도 서민층에 와닿는 물가 관리 등 딱히 이렇다 할 경제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여당이 이기면 무엇을 할 것인지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업체 조앤씨앤아이의 김대진 대표는 국민의힘 123~132석, 민주당 148~153석, 조국혁신당 12~14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대표는 “조사 결과 서울은 최근 중·성동을, 광진갑·을, 마포갑·을 등 한강벨트에서 여당 후보가 열세고, 여당에 우호적인 성남분당갑·을도 안철수-이광재, 김은혜-김

병욱 후보가 접전 중이다. 부산도 야권 지지도가 회복 중”이라며 “연초 여권 우위였던 지역에서도 최근 이 전 장관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회갈 데려’ 발언 여파로 중도층과 무당층이 돌아서는 추세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의대증원 이슈·이재명 실화 등도 영향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아이의 이준호 대표는 국민의힘 127~133석, 민주당 142~145석을 예상하며 “공표된 조사 등을 종합해 보면 여야의 접전지였던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에서 여당의 예상 의석수가 지난달보다 최소 10석 이상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종섭-황상무 논란은 수습 국면이지만 의대 정원 이슈가 남아 있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아직 투표가 20일 남은 만큼 판세를 바꿀 변수는 여전히 있다”면서 윤·한 충돌, ‘조국의 강’, 의대 정원, 막말 등을 막판 변수로 꼽았다.

최 소장은 “윤 대통령의 재등판과 의대 정원이 남은 최대의 변수”라면서 “그간 여권이 우위를 점했던 것은 윤 대통령이 선거관에 별로 소환되지 않도록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도 ‘윤·한 갈등’에 주목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디커플링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이 관세를 만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동훈의 시간이 다시 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 가장 큰 변수”라고 했다.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는 만큼 윤 대통령과 거리를 뒤야 중도층이 국민의힘에 다시 호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 소장은 “현재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에서 극적 타결을 만들어낸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제고되면서 판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돌풍을 변수로 꼽았다. 그는 “조국 대표는 양날의 검이다. 그가 뜰수록 자녀 입시비리와 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 기억을 떠올리게 할 것”이라며 “서울 등에서는 야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부정적 이슈의 예방주사를 이미 다 맞은 셈”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2책’ ‘집에서 쉬든가’ 등처럼 주요 인사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실화’는 마이너스 효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운·전민구 기자

이재명 “정부는 머슴” 심판론... 한동훈 “이, 국민 무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국내로 압송하라”고 말했다. 4·10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오자 직접 공방전에 뛰어들며 ‘정권 심판론’에 연일 불을 붙이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윤석열 정권은 장병 희생은 안중에도 없고 진실 은폐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이날 사퇴와 관련해선 “정부가 국민에게 첫 번째로 무릎

꿨은 사례가 생겼다”며 “정부가 이걸로 생색내고 끝내려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 그들이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머슴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황상무 수석의 문제라든지, 이종섭 대사의 문제는 오늘(20일) 다 해결됐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막말 파동이 난 사람들을 다 그대로 두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고 민심을 거부하지만 우리는 민심을 따를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공연히 잘 있는 중

국에 쓸데없이 과도하게 시비를 걸어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전날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중국몽 타령을 늘어놓는 이 대표의 외교·안보관이 한심스럽다”고 맞박았다.

이 대표는 인천시 미추홀구 재래시장을 찾아선 대과 한 단을 손에 들고 “850원짜리 대과 한 단을 본 적이 있느냐. 이걸 5000원이다”고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형마트에서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박지원 전 국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인천 지역 후보와 함께 미추홀구 토지공고시장을 방문해 대과를 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전민구 기자

보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나중에 명예당원으로 모셔야겠다”는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의 제안에 “좋다. 폭넓게 봐야 한다”고 화답한 것을 두고 ‘엄중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 대표는 “박 후보의 발언은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며 “공천장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었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엄중경고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원장은 “명예당원 발언은 덕담 차원이지만, 부적절했다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의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연합은 이날 코인 투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추가로 영입해 현역 의원 11명을 확보했다. 김정재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탕감
전문**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충돌 보험 적용 됩니다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윤 대통령 “이승만 레일 위 박정희 기관차… 이게 번영토대”

“우리 현대사 다시보는 계기 됐다” 이병철·정주영 회장 업적 기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이승만 전 대통령이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관차가 달렸다는 말처럼 두 대통령의 결단과 노력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최근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이 관객 116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 현대사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급담산업부장) 등 수출유공자 9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 뒤 “자유주의 경

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1시간가량 특별 강연을 했다. 윤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농지개혁·교육개혁·정치개혁이란 3개 개혁으로 대한민국의 토대를 닦았다”고 말했다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수출 주도 공업화 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업적도 기렸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그 길 맨 앞에 우리 기업이 있고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다”며 이 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오프닝 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구광모 LG그룹·정의선 현대차·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 대통령,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회장의 업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일으킨 해안을, 정 전 회장의 업적으로 조선과 중동 건설 신화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화 및 이종구조 개선 ▶노조 및 독과점 카르텔 철거 ▶기업 가계승계 및 상속세 개

선 ▶기업규제 혁파 등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도 거듭 강조했다.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현장에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독과점 카르텔 타파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원활한 기업 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해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로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6070 “김태호” 2040 “김두관”… 세대투표 뚜렷

총선핫플레이스 | 경남 양산

“누가 될지 신(神)도 모를 박빙입니다. 인자 여기는 국민의힘이 안심할 수 없는 협지라예, 협지.”

20일 경남 양산시 동면을 향하는 택시 안에서 기사 김명구(62)씨는 “그나마 유명한 김태호가 와서 접전이잖아, 다른 사람이 나왔으면 턱도 없이 깨졌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김두관도 인물은 괜찮은데, 당이 쪼매 뻔해. 아직도 누굴 뽑을지 안정한 사람이 천지뻬까리”라고 덧붙혔다. 2016년 지역구 신설 이후 2번의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2%포인트 이내 차로 이겼다.



경남 양산을 국민의힘 김태호(왼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지난 18일 각각 지역구에서 시민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김두관(재선) 민주당 후보의 지역구인 이곳에 국민의힘이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3선 김태호 후보를 차출하면서 전직 경남지사 간 맞대결이 성



송봉근 기자

사됐다. 2006년 경남지사 선거 이후 18년 만의 ‘리턴매치’다. 당시 승자는 김태호 후보였다. 상인들 중엔 “윤석열이랑 한동훈이랑 싸워 사서 우짜노”라며

윤·한 갈등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적었다.

지난 18일 오후 덕계시장을 찾은 김태호 후보는 한 속옷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빨간 내복 좀 주시오”라고 말했다. 주인이 내복을 건네자, 김 후보는 “빨간 기운 받고 잘해볼게요”라고 했다. 비교적 큰 키(186cm) 때문인지 그는 눈에 잘 띄었다. 김 후보가 양산에 온 건 불과 40여일 전이지만, 상인들은 “맨날 오네”라고 반겼다. 가는 곳마다 “한 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고 강조하던 김 후보는 “주민도 국가에 산을 따올 수 있는 여당 후보에게 기대가 크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전, 덕계오일장을 찾은 김두관 후보가 “장사 준비하시는데 미

안합니다”라며 악수를 청하자 생선을 손질하던 상인은 장갑을 벗고 손을 건넸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양산을 유권자 502명을 상대로 벌인 조사에선 김태호 후보 45%, 김두관 후보 41%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였다. 세대투표 흐름이 뚜렷했는데, 김태호 후보는 60대와 70세 이상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고, 김두관 후보는 40대와 19~29세에서 크게 앞섰다.

평산동에 사는 택시 기사 허영기(66)씨는 “고령층이 많은 구도심 웅상과 외부 젊은 층이 많이 들어선 동면(사송신도시 등)의 표심이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무선 전화 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 포인트.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경남 양산=김기정·이기림 기자**

극초음속미사일 사거리 늘리는 북한

북한이 다단계 고체연료 엔진 연소 시험을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 사거리 늘리기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유사시 괌이나 일본에 있는 미군 증원 전력에 배치된 기지를 타격하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미사일총국과 산하 발동기(엔진) 연구소에서는 3월 19일 오전과 오후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신형 무기체계 개발 일정에 따라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미사일에 장착할 다단계 고체연료 발동기 지상분출(연

소)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해당 시험의 성공을 강조하며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무기체계 개발 완성의 시간표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북한은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의 고체연료 연소 시험을 지난해 11월 11일 1단 엔진에, 같은 달 14일 2단 엔진에 대해 각각 실시했다고 공개했다. 이후 지난 1월 14일에는 당시 시험한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탑재해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에 나서려는 것은 연료를 실은 채 장거리 비행이 가능해 지하 시설에 숨겼다 가 유사시 즉각 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로서는 발사 징후 포착이 그만큼 어려워진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고체연료 연소 시험 때 ‘중거리급’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중장거리급’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한국 국방백서는 북한의 화성-12형을 사거리 3000~5500km인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분류한다. 5500km라면 짧은 물론 알래스카도 겨냥할 수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이 유사시 태평양 지역 주요 미군 기지에서 전개될 미군 증원 전력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본·괌 등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PAC-3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은 마하 5(시속 6120km) 이상 속도로 회피 기동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

미국 공군은 공중 발사 극초음속 무기 시험을 진행했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미국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미 공군 대변인은 ‘공중발사 신속대응무기(Arrw)’를 장착한 B-52 폭격기가 지난 17일 괌 앤더슨 기지에서 출격해 마셜제도의 레이건 테스트장에서 시험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시험한 것은 록히드마틴이 제조한 극초음속 미사일로, 공식 명칭은 ‘AGM-183A 공중발사 신속대응무기’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날아갈 수 있고 추적과 파괴가 어렵다는 점에서 무기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워싱턴=김형주 특파원, 이근평·이유정 기자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가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Science in Every Smile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더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우리말 바꾸기

‘결단’, ‘결판’

중요한 판단을 내리거나 결심했다는 걸 나타낼 때 “결판을 내리다”라고 쓰곤 한다. 그러나 이는 바르지 못한 표기이므로 주의해 써야 한다.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릴, 또는 그런 판단이나 단정을 의미하는 낱말은 ‘결판’이 아닌 ‘결단’이다. 발음이 [결판]으로 소리 나기 때문에 ‘결판’이라고 표기하기 쉽지만, ‘결단’은 ‘결정할 결(決) 자와 끊을 결(斷)’ 자로 이루어진 단어다.

‘결판’은 ‘결단’과는 다른 뜻을 지닌 독립된 단어로, 어떤 일이나 물건 등이 아주 망가져서 도무지 손을 쓸 수 없게 된 상태나 살림이 망해 거덜이 난 상태를 의미한다. “이젠 집안을 아주 결판내려고 하는군” 등과 같이 쓸 수 있다.

“사업 실패로 집안이 완전히 결판났다” “보증을 잘못 서서 살림을 결판내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다” 등 ‘결판나다’ ‘결판나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간혹 이를 ‘결판나다’ ‘결판나다’로 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결판’은 사전에 없는 말로, ‘결판’으로 고쳐 써야 바르다.

정리하자면, 무언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땐 ‘결단’, 망가지거나 거덜 나는 걸 나타낼 땐 ‘결판’으로 써야 한다. ‘결판’은 ‘결판’으로 바꿔 쓰면 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긴 점,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발언대

한국의 의료 대란을 보며

“의대 정원 대폭 확대는 교육 질 저하 우려”



박성운
신경내과 전문의

한국이 의료 대란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신입생 숫자를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려 하자 의사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의사들의 반대 이유가 경제적 기득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는 의사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결코 그것만은 아니다.

의학교육은 거의 실습과 실력으로 이뤄진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이 환자를 직접 치료하며 선배와 교수 밑에서 시술 방법을 터득하는 과정이다.

사실 미국에서는 의대 2학년 2학기부터 강의는 별로 없고 주로 7~8명으로 짜여진 팀 안에서 각자 공부한 후 발표하고 토론한다. 그 외의 모든 시간은 직접 환자를 치료하며 배우게 된다.

물론 선배 수련의들과 교수들의 감독아래서 말이다. 즉, 의과대학 진학 후 2년이 채 못되어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병동으로 투입되는 셈이다.

환자를 배당 받아 직접 시술을 해보고, 선배 수련의들 밑에서 치료하는 소위 ‘hands on experience’를 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학생들도 의료 사고에 대비한 보험(malpractice insurance)을 제공된다. 그래서 의대 4학년을 마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갈 때면, 본

인 전공과는 별개로 산부인과에서 아이도 몇 번 받아보고 소아과에서 정신과까지 수개월씩 선배나 교수들의 감독아래 직접 치료 경험을 쌓게 된다. 한국의 의대 교육도 미국과 비슷하다고 들었다. 필자는 수십년전 미국에서 의사 수련을 시작했을 당시 내과적 시술을 배울 수 있는 차례가 잘 오지 않아 안타까울 때가 많았다.

즉, 환자 케이스가 부족하기도 하고, 가르칠 사람이 부족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간단한 시술도 경쟁이 심했다. 그래서 미국도 의과대학 확대는 조심스럽다.

한국의 의대 입학생을 한꺼번에 2000명이나 늘리면 교육의 질 저하는 뻔해 보인다. 직접 환자를 치료해보면서 수련을 마쳐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 의사들이 많이 배출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한국 정부는 수요와 공급의 개념만으로

의사 증원을 강행하려는 것 아닌가 싶다. 그저 의사 숫자를 늘리면 의료 불평등이 해소되고 지방의 의사 부족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고 여기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방 의대를 확충하려면 대도시 인구 집중, 미래 인구 절벽 문제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또한 이공계 기피 심화와 회사원들까지 의대에 지원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의학교육은 거의 대부분 처음부터 수련이다. 원래 서양의 외과의사 교육은 이발사의 도제교육(apprenticeship, 경험많은 기술인의 발 밑에서 하나하나 배움) 과정에서 많은 것을 가져왔다고 한다. 책을 읽고 시험을 통과하면 반짜리 밖에 안된다. 필자의 경험으로도 실제 경험이 많지 않을 경우 항생제 처방도 두려울 때가 많다. 그래서 이미 훈련을 끝낸 의사의 진료도 ‘연습’, 즉 ‘프랙티스(practice)’ 라고 하지 않는가?

한국의 의료 대란이 오래가지 않길 바란다. 의학교육이 어떤 것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 관여해서 깊이 의논하고 결정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

지방의 의사 및 시설 부족을 심도있게 연구, 토론하고 일선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책상과 교실이 있다고 의학 교육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진료 현장 떠나는 것은 의료인의 본분 망각”



송장길
연료인·수필가

현대 사회과학계의 태두 막스 베버는 명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1. 대의(大義)에 헌신하는 열정 2. 책임의식 3. 자신을 통제하며 갖는 균형 감각 등을 정치 지도자의 요건으로 강조했다. 개인의 영달이나 이기주의가 발붙일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의사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종이니 정치인 못지않게 높은 수준의 직업의식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제네바 선서까지 맹약하고 의사의 길을 걷는 전문인이나 소명감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의 의료계가 요즘 자신들의 이해에 매몰돼 환자들을 등지고 집단 이기주의의 행태를 보인다. 이런 중차대한 사태에 환자는 물론 많은 국민들도 싸늘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의사들은 사회의 상위 계층에 속한다. 그런데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우려 자기의 성역인 병원을 뛰쳐나가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다).

이런 행태는 환자의 생명을 ‘나 몰라라’ 하는 속 좁은 오만이며, 의술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의료 수요 증가에 대처하려는 정책을 ILO(국제노동기구)에 제소까지 함으로써 스스로 전문인에서 노동자로 계층 변환을 자처하는가 하면, 국제적으로 신망이 높던 한국 의료를 문제의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현실적으로 의사들도 격무에 시달리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또한 의사 전체가 의대생 증원에 반대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그러나 이유 불문하고 의사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는 과격한 행보는 의사의 본분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의 가족이 환자라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묻고 싶다. 이런 행동은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일부 강경한 분위기에 휘둘러 사태가 더 악화하거나 장기화한다면 환자들의 고통은 물론, 사회 시스템에 상처를 주는 동시에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 뻔하다. 국민의 일부인 의사들에게도 부담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무조건 철회하라는 요구는 행정 행위의 속성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다.

의료 수요 증가에 맞춰 의대 신입생 숫자를 늘리려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 의료계의 반발로 후퇴한다면 다른 이해 집단들도 나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 전체가 카오스 상태에 접어들 우려도 있다.

사회의 가치 체계가 혼미한 이런 상황을 부끄러워하면서 수수방관 대신, 사태의 조기 수습과 한국 의료의 선진화를 위한 전향적인 비전 마련에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기능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변호사 임종범 *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치몬드 페넌슐라 상담완료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연평도의 포문은 늘 북쪽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14일 가뒀던 대연평도 서남쪽의 평화공원은 절경으로 유명하다. 평화공원 언덕에서 높이 40m의 병풍바위가 보였다. 병풍바위는 영화 ‘빠빠용’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탈출한 절벽과 비슷하다고 해서 ‘빠빠용 바위’란 별명이 붙었다. 병풍바위 아랫단부터 알록달록한 자갈과 굵은 모래의 가래칠기 해변이 펼쳐졌다. 무엇보다 평화공원에서 즐기는 낙조(落照)는 숨막힐 정도로 아름답다고 한다.

평화공원의 조지역사박물관에 입장하면 한때 조기잡이로 서울의 명동 못잖게 번성했던 연평도의 과거를 살펴볼 수 있다. 조금만 걸으면 등대가 나온다. 북한 간첩선의 길라잡이로 활용될까 우려해 가동을 중단했던 1974년까지 불을 밝혔던 등대다.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합의를 계기로 남북 공동어구역을 추진하고 서해 야간조업이 활발해졌다는 이유로 2019년 5월 17일 재점등했다. 현재 북측 장을 가려나 북한에선 등대 불빛을 볼 수 없다.

이 같은 관광명소가 평화공원으로 불린 까닭이 있다. 이곳이 전쟁터였기 때문이다. 평화공원 앞바다는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2년 제2연평해전의 격전지였다. 대연평도는 2010년 11월 북한으로부터 기습적 포격을 받았다. 그래서 평화공원에 제2연평해전 때 숨진 해군 6명과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해병대원 2명을 추모하는 시설이 들어섰다.

이날 잔뜩 긴 바다 안개는 대연평도 북쪽의 망향 전망대에서 북한 석도와 갈도의 자취를 숨겼다. 석도는 4km, 갈도는 4.5km가량 각각 대연평도에서 떨어졌다. 북한은 2010년대 무인도였던 갈도에 병력과 방사포를 배치했고, 장제도(7km)·대수압도(15km) 등 연평도 주변의 다른 무인도들도 군사기지로 만들었다. 100년 넘은 아름드리 소나무가 우거진 대연평도의 숲은 가끔 들성들성했다. 연평도 포격전에 불탄 소나무를 베고 새로 심으며 생겼던 ‘흉터’였다.

“중국 어선 많이도, 적어도 걱정”



해병 연평부대의 K9 자주포. 북한의 도발에 5분 내 반격하도록 포신의 방향은 늘 북쪽으로 둔다.

[사진 박영준]

22일은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이다. 서해를 지키다 산화한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기념일이다. 1999년부터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서해5도를 대상으로 벌인 무력 도발로 군인 54명이 전사하고, 1명이 순직했으며,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 평화공원에서 내려다본 서해 서해는 어떤 전략적 가치가 있을까.

해군작전사령관을 지낸 박기경 예비역 해군 중장은 “서해 NLL과 서해5도가 없다면 북한은 해상에서 수도권을 바로 노릴 수 있다. 유사시 북한 관 ‘인전상륙 작전’이 가능하다”며 “그래서 서해 NLL은 수도권의 방화선, 서해5도는 수도권의 방파제”라고 설명했다. 박기경 전 사령관은 “경기도 넓이만 한 황금어장을 확보할 수 있는 건 덤”이라고 덧붙였다. 서북도서(서해5도) 방위를 책임졌던 김태성 전 해병대 사령관은 “북한 입장에서 서해5도는 자신들 목에 들이던 비수(匕首)”라고 말

했다. 김 전 사령관에 따르면 서해5도는 황해도와 멀지 않기 때문에 각종 정보자산으로 북한 내륙의 동향을 속속 들여다보며, 유사시 북한 후방으로 반격할 수 있는 거점이다.

특히 백령도는 150km 안팎 거리의 평양에 한 방 먹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통일 이후 중국의 북해 함대와 항공모함 기지가 있는 산둥(山東)반도를 견제할 요충지이기도 하다. 중국을 동쪽(한반도 방향)으로 밀어붙여 서해를 중국의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서해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안철성씨는 연평도 포격전 피해 지역에 세워진 연평도 안보교육장에서 해설사로 일하고 있다. 안 씨는 “포격전 당시 북한은 먼저 해병대 기지가 몰려 있는 섬 북쪽을 공격했고, 1시간 후 민가가 밀집한 남쪽을 때렸다”며 “많은 사람들이 배를 기다렸던 여객터미널로 방사포탄이 날아와 들 황급히 엎드렸는데, 다행히 살짝 빗나가 바다로 떨어졌다”고 기억했다. 그는 “어업으로 주로 먹

고사는 연평도에선 중국의 불법 조업이 가장 큰 골칫거리다. 그런데 중국 어선단이 많이 몰려도 걱정, 요즘처럼 드물어도 걱정”이라며 “북한이 또 뭔가 일을 꾸미려고 최근 중국에 조업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가 싶다”고 우려했다.

꽃게 조업기를 노려 도발한 북한

안씨의 기우(杞憂)로만 여겨선 안 되는 게, 북한의 발언이 심상찮아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과 지난달 두 번이나 ‘북방한계선’은 북한의 해상주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경계선이며, 한국이 북한의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전쟁 도발로 간주하고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했다. 북한은 먼저 엄포를 놓고 나중에 도발하는 패턴을 그동안 보여왔다.

제1연평해전부터 연평도 포격전까지 서해 일대에서의 북한 무력 도발은 5번 있었는데, 그중 4번이 꽃게 조업기와 겹친다. 서해에서 꽃게는 매년 4~6월과 9~11월에 많이 잡힌다. 천안함 피격만 3월에 일어났고, 나머지는 모두 6월과 11월에 발생했다. 올해도 다음 달 꽃게잡이가 시작한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은 김정은의 발언을 가볍게 보지 않고 서해에서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연초부터 비상과 훈련이 이어졌지만, 해병 연평부대 포7중대의 장병은 날이 바빠졌다. 연평도 포격전 당시 포화를 뚫고 북한에 되받아쳤던 부대다. 부대 구호는 ‘우리는 승리했다’. 14일에도 주특기 훈련으로 부대 전체가 분주한 분위기였다. 포7중대의 K9 자주포 포문은 늘 북쪽으로 향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5분 안에 북한의 목표 지점으로 초탄을 날리기 위해서다. 명령만 떨어지면 자주포로 달려가 사격준비를 마치는 훈련을 불시에 연다. 자다가도, 샤워 중이라도 이 훈련의 예외는 아니라고 한다. 서글서글한 인상의 이성한 해병 대위(포7중대장)는 “저놈들이 한번 더(연평도로) 쏴기만 한다면 그만두지 않겠다. 자신 있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갑자기 눈빛이 이글거렸다. 마음이 절로 든든해졌다.

이철재 군사안보연구소장·국방선임기자

‘이재명은요?’ 대신 한동훈에게 필요한 것

최근 급격히 재부상한 정권 심판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타하는 목소리가 여론에서 비등하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과 성정은 이미 2년간 겪어온, 국민의힘이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수(常數)다. 그동안 이유 없이 정권 심판론이 컸던 건 아니지 않나.

문제는 변수(變數)로 기대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점차 상수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 초보인 그에게 변화무쌍한 선거 기술을 바란 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발언 패턴을 보면 그가 대중 어떤 말을 할지가 그려진다. 지난달 29일 기자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현역 교체율이 낮아 쇠신이

안 되고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고 있는 건 쇠신이나”고 반문한 게 대표적이다. 취재진이 국민의힘의 문제를 지적하면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 반박하는 “이재명은요?” 화법이 거듭되고 있다.

최근엔 선거 메시지도 고착되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발대식이 있던 지난 19일 하루에만 ‘종북(從北)’ 단어를 6번 이상 꺼냈다. 물론 종북 논란 인사의 국회 진입은 큰 문제다. 그렇지만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걱정인 대부분의 국민은 반복적 종북 표현보다 민생 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참석자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모습. [연합뉴스]

제 해법을 집권 여당 대표에게 듣고 싶은 것이다. 오죽하면 “공안 검사도 아닌데 왜 그리 종북 얘기를 좋아할까”라는

말이 나올까.

한 위원장이 전략적 사고를 통해 변수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공천 문제만 봐도 그렇다.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다지만, 결과적으로 현역 대부분과 친윤 핵심 모두가 살았고, 신인은 숨 쉴 틈이 거의 없었다. 반면 민주당 ‘친명황재’ 공천이 시끄럽긴 했어도 안민석·김의겸·이수진(지역구) 의원 등 여론에서 평가가 좋지 않던 인사 상당수는 탈락했다. 법무부 장관 시절 한 위원장은 이들과 실정을 해봤기에 이들의 낙천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한 위원장이 공을 들여 영입한 김영주·이상민 의원 등 ‘귀순 용사’를 곧바로 공천을 준 게 파격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에서 폄박받은 이들이 무소속 출마를 했다더라면 3자 구도가 형성돼 국민의힘의 승리 가능성이 더 컸을 수 있다. 더욱이 민주당에서 이미 4·5선을 한 의원들이 파란색 대신 빨간색 점퍼를 입고 나타난다고 감동할 유권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4·10 총선은 이제 20일 남았다. 대중은 예상하지 못한 서프라이즈에 반응한다. ‘이재명이 더 나빠요’ 대신, 셀카 속 밝은 미소 대신, 바짝 옅드려 읍소를 하는 처절한 모습에 유권자는 좀 더 반응하지 않을까. **허진 정치기부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3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시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꼭,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페어팩스 콘도

방2+와2

\$41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3+와3, 차고2

\$800,000

센터빌 타운홈

방3+와3.5, 1,496 sqft, 1993년

\$535,000

센터빌 타운홈

방3+와3, 1,360sqft, 1985년

\$500,000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11350 Random Hills Rd., #870
Fairfax, VA 22030

베일렌드 / 301-399-0140
6701 Democracy Blvd, #300
Bethesda, MD 20817

D.C. / 301-399-0140
13001 I St, NW #400E
Washington DC 20005

시설

증원 배분 발표가 끝이 아니다... 대화 포기 말아야

정부가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대학별로 배분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7개 지역 거점대학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등 지역 의대에 모두 1639명을 배정했다. 수도권에선 서울을 뺀 경인 지역에서만 361명을 늘려 2000명을 모두 맞췄다. 2000명 증원을 사수하되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명분을 얻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의료 현장을 떠나려는 의사들의 등을 오히려 떠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의협은 “정원 배분을 발표하는 것은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다리를 자르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 대의대 교수들도 19일 “의대 정원 배정은 대화의 장부터 마련한 후로 미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런데도 증원 배분안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더는 증원 규모를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일 것이다.

정부의 행정처분 압박에도 지난 한 달 동안 돌아온 전공의 수는 극히 미미하다. 의대생들의 유급 시한도 코앞에 닥쳤다. 빅5라 불리는 수도권 대형 병원을 포함한 의대 교수들마저 25일 사직서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상황이 한 발짝씩 수렁을 향해 가고 있지만, 정부는 의사들과 대화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필수의료 패키지와 비상의료대책을 연일 내놓았지만, 의사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당장 어제 발표도 갑자

기 지역 의대 정원을 3~4배로 늘리면 학생들 교육과 졸업 후 수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잘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정부가 증원 규모를 뺀 협의 테이블에 의사들을 불러들일 수단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끝내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이후 불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저 의사들 책임으로 돌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이제 각 대학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해 대학교육협의회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서를 내야 한다. 대학교협의 심의·조정을 거쳐 5월 중 대학별로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면 정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반대로 그때까지는 조정의 여지가 있는 셈이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어제부터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 돌입한 대한의사협회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현재 후보로 출마한 5명 중 4명이 강경 노선을 천명하고 있다고 한다. 그간 의협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협상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의사는 전혀 부족하지 않이라며 한 명의 증원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억지 주장으로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런 마당에 향후 개원의 과업까지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일 뿐이다.

2000명 배정 강행했지만 5월까지 조정 여지 대화 창 닫지 말고, 의협도 분란 조장 자제를

‘윤·한 충돌’ 속히 일소하고 ‘예측 가능한 정권’ 되길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어제 자진 사퇴했다.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다. 대통령 핵심 참모가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회칼 데리’ 운운하며 언론에 대한 겁박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발언을 했는데도 대통령실은 그의 거취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는데도 “사과했으니 됐다”며 일축했다. 그러다 여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당정 갈등이 격화 조짐을 보이자 옛새 만에 사표 수리로 봉합한 형국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오른 와중에 출국해 논란을 빚어온 이종섭 주호주 대사도 매마침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급한 불은 끄지만 국민은 여전히 불안하다.

윤 대통령은 황 수석 사퇴 전날까지도 “사람 그리 쓰는(버리는) 게 아니다”며 유임을 고수했다고 한다. 한 위원장이 귀국을 촉구한 이 대사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소환도 안 했는데 왜 들어야 하나”며 버티다가 귀국 요구 여론이 과반을 넘자 열흘 만에 마지못해 받아들인 모양새다.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도 윤 대통령 측과 한 위원장은 갈등하는 양상이라 우려를 더한다.

공천관리위원이자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호남 출신과 당직자들이 공천에서 배제됐다며 그제 불만을 공개 표출, 한 위원장과 고성인 오갈 만큼 다투었다고 한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놓

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정면 충돌을 기억하는 국민으로선 ‘제2의 윤·한 충돌’이 일어날까 봐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다.

여당이 윤·한 갈등 수습에 실패하면 총선 패배는 불문가지다. 여권 분열에 자신감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과반 승리를 언급하며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을 외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이제라도 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한 위원장과도 갈등 실마리를 풀지 않으면 야당의 이런 주장이 현실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현 정부를 두고 많은 사람이 ‘예측이 불가능한 정권’이라며 답답해 한다. 상식에 어긋나고 총선에 악재인 게 뻔한데도 대통령이 그런 방향으로 행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참모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니 더욱 안타깝다.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사소한 일로라도 국민 신뢰를 상실하면 정책의 동력은 금방 고갈되고, 남은 임기의 향배를 결정할 총선에서 패배하기 마련임을 대통령은 각성해야 한다.

공수처 역시 이 대사가 귀국한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이 대사를 소환해 실제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당장 소환이 어렵다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히는 게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할 길임을 명심하라.

차라리 한국은행에 개혁을 맡겨라

이상렬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봤다. 눈길이 간 것은 간병 대책이다. 양당 모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내걸었다. 반가운 이야기지만, 결국 재정 문제다. 복지부 추산 연간 간병비는 최소 15조원이다.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양당의 설명은 두루뭉술했다. 다른 지출을 줄이고 매년 늘어나는 재정수입을 활용한다고 했다. 말뿐인 공약(空約)이 되기 십상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간병과 관련해 보다 손에 잡히는 보고서를 내놨다. 지난해 월평균 간병비(추정치)는 약 370만원. 40~50대 중위소득(588만원)의 63%다. 간병비 부담 등의 사정 때문에 가족이 직접 돌보는 가족간병 규모가 2042년엔 212만~355만 명에 이르고, 그에 따른 노동 손실 비용이 46조~77조원으로 그 시점 국내총생산(GDP) 예상치의 2.1~3.6%가 되리라 추산이다. 국민에게 ‘간병 지옥’이고, 나라엔 ‘국가적 재앙’이다.

한은은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간병 같은 돌봄 서비스에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하고, 대신 간병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그중 하나다. 간병비에 시달리는 한국인도, 자국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도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업종별 차별과 최저임금 하락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과연 노동자들의 속마음도 그럴까. 저소득층일수록 간병비 체감 고통은 더 커지고, 간병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그간 최저임금 차등화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간병비 문제 해결에 진심이라면 외국인 노동자 활용부터 진지하게 추진할 일이다.

양당은 저출생 대책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한 달 유급 아빠휴가와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제시했다. 이 정도로 출산 기피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지금도 제도가 없어 육아휴직을 안 하는 게 아

니다. 눈치 보여 안 쓰고, 잘릴까 봐 겁나서 못 쓴다. 그래서 한국의 육아휴직 사용률(19.8%)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다.

민주당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약속했다. 첫째 자녀를 낳으면 무이자 대출로 전환, 둘째 출생 시 원금 절반 감면, 셋째 출생 시 원금 전액 감면 내용이다. 그럼 재원은? 지난해 혼인 건수 19만4000건을 단순 적용하면 연간 대출 재원만 19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양당 모두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저출생 원인은 얼추 나와 있다. 일자리, 주거, 양육이 주요인이다. 한은은 작년 말 보고서에서 이런 여건을 OECD 평균으로 개선하면 출산율을 0.85명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중엔 도시인구집중도를 OECD 평균으로 낮추면 출산율이 0.41명이나 올라간다는 시

한은, 간병 노동 외국인 활용 제시 수도권 집중 완화 같은 해법 눈길 돈 써서 문제 풀자는 주장은 하책

나리도 있다. 사람도, 돈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바람에 집값이 뛰고 경쟁이 심해져 출산을 더 꺼리기 때문이다. 청년 고용률을 OECD 평균으로 높이면 출산율이 0.12명 높아진다는 항목도 있다. 물론 월급과 복지가 좋은 직장에 다닐수록 결혼과 출산에 좀 더 적극적이다. 현실적으로 주로 대기업 일자리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14%로 OECD 중 가장 낮다(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미국(58%)의 4분의 1, 프랑스(47%)의 3분의 1이다. 오랜 세월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대기업 억제 정책의 결과다.

돌봄도, 저출생도 한국 사회의 숨통을 죄는 문제다. 돈으로, 국민 세금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은 하수(下手)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수도권 집중 완화, 대기업 일자리 늘리기 등 생각만 고쳐먹으면 할 수 있는 게 많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사회적 타협을 통한 구조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왔다. 맞는 말이다. 그렇게 국민을 설득하고 대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다. 지금은 영보기 힘든 모습이 됐다. 수석는설위원

중앙일보

<p>구독신청: 02-751-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fe.joongang.co.kr 광고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물품: 불만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 제1종 인쇄업자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의 FINANCIAL TIMES, 일본의 NHK, 日本経済新聞</p>	<p>시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근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가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	---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간편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MAR. 21ST - MAR. 28TH, 2024

HAITAI
 Haitai
Matdongsan
Snack

해태 맛동산
 10.58 OZ

2\$5
 FOR



HELLO HOME
Portable Butane
Gas Stove

헬로홈 휴대용
가스렌지

~~REG. \$23.99~~

\$13.99
 EA **BLACK**



Built-in windshield and long pan support for stability

내장형 바람막이와 안정성을 위한 긴 팬 지지대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KOREAN AIR
SKYPASS VISA®



여행을 빛내는 여행 필수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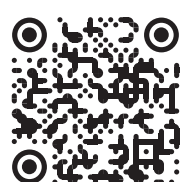
마일리지 여행의 품격을 높이는
바로 그 카드
스카이패스 비자 카드

더욱 많은 마일리지 적립과
더욱 업그레이드 된 혜택,
그리고 대한항공만의 특별함까지*

당신의 여행스타일에 맞춘 여행 필수템,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비자 카드



오늘 당신에게 맞는 카드를 신청하세요!



skypassvisa.com

스카이패스 비자 카드
SKYPASS Visa® Cards

*특정 약관과 조건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skypassvisa.com을 참조하십시오. 본 카드의 발급기관은 Visa U.S.A. Inc.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한 U.S. Bank National Association이며, 카드는 미국 내 거주자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민 / 유언장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March 21,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은퇴 후 별장 장만하고 수익도 내볼까

세컨드홈 구입시 고려사항
은퇴를 앞두고 있던, 이미 은퇴를 했던 한 번쯤 꼭 살아보고 싶은 꿈의 은퇴지가 있을 것이다. 이는 아예 원하는 은퇴지로 이주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세컨드홈을 구입해 현 거주지와 별장을 오가며 생활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때 현 거주지를 정리하고 아예 다른 지역으로 생활 기반을 옮기는 것은 그 지역을 잘 모를 경우 위험 부담이 크다. 대신 세컨드홈을 구입하면 이런 위험 부담 없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때에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세컨드홈을 구입하려 하면 고려해야 할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세컨드홈 구입 전 알아두면 좋은 구입의 장단점 및 결정사항을 알아봤다.



세컨드홈은 구입 전 구입 목적과 그곳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낼 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입해야 한다. 사진은 카멜 소재 바닷가에 위치한 단독주택 전경. (unsplash.com 캡처)

▶장점
세컨드홈 구입 시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부동산 투자에 따른 향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로리다 소재 한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플로리다 숲속 소규모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며 “재택근무 붐이 있었지만 별장 개념의 세컨드홈을 구입하려는 은퇴자들이 몰린 것도 큰 영향을 줬는데 이들은 향후 매매 수익도 고려해 구입한다”고 설명했다.
집 매매를 통한 수익 외에도 임대 소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만약 세컨드홈에 머무는 시간이 연중 몇 달간이라면 나머지 기간 동안 단기 임대를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어비엔비 등과 같은 임대 플랫폼을 통해 임대를 결정할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숙박객들에게 안정적인 서

분산투자, 상속 가능, 임대 수입 기대 단기거주 후 구입 결정해야 후회없어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또 코럴 정부의 단기 임대법과 HOA 규정 등도 살펴봐야 한다. 만약 이 모든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단기 임대는 꽤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세컨드홈 구입 시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투자 전문가들은 세컨드홈 구입은 분산 투자 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한다. 만약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급전이 필요해 집을 팔아야 할 때 이사갈 새 집을 알아봐야 하고, 원하는 집값을 받기 힘들 수도 있지만 세컨드홈 판매 시엔 이런 부담 없이 현금 확보할 수 있다.
또 상속 가능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집이 비어 있는 동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빈집 관리는 거주자가 있는 집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빈집 관리를 위해 대부분의 홈오너는 관리자를 고용하는데 세컨드홈 매니저먼트 업체 관계자들은 “관리인을 고용한다 해도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이 비었을 때 빈집털이 문제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며 “카메라와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해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구입 당시엔 적잖은 시간을 세컨드홈에서 보낼 것 같지만 부동산 에이전트들에 따르면 홈오너의 예상만큼 주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주현 객원기자
▶단점
세컨드홈 구입에 따른 단점도 분명
▶3면 '세컨드홈'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야곱의 사막다리
www.jilcontractor.com
703-835-0945
ROOF
20년 이상된 지붕! 점검 필수! (상담 환영)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퀘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부업을 뛰지 않아도, 건물이 없어도 월세를 받는 것처럼 현금을 매달 손에 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매일 꼬박꼬박 통장에 돈이 꽂히는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다. 노후 생활비 혹은 용돈을 위해 남녀노소 세대 불문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2022년 6월 국내 시장에 첫선을 보인 월배당 ETF는 이달 순자산 총액(AUM) 4조원을 돌파했다.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다. 현재 한국내에 상장된 월배당 ETF는 50개에 육박한다. 투자자 수요에 맞춰 한국내의 주식형과 채권, 리츠, 커버드콜 등 다양한 형식으로 출시되고 있다. 월배당 ETF의 세계를 들여다본다.

1 꾸준한 배당? 투자금 불리기? 목적에 맞는 상품 선택이 중요

상품이 많아지면서 투자자의 고민도 커진다. 노후소득인자 당장의 용돈인지, 투자 목적에 따라 담은 월배당 ETF도 달라져야 한다. 머니랩에서 '월배당 라인업'을 갖춘 한국내 대표 5개 운용사와 함께 최적의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찾아왔다. 1억원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해 제2의 월급을 만들까. 월 125만원을 당장 손에 쥌 수 있는 포트폴리오부터 10년 뒤 배당이 50% 성장하는 포트폴리오까지 다양한 조합을 소개한다.

월배당 상품은 뜯어보면 '눈속임'이다. 내가 원래 받아야 할 분배금을 운용사가 시기만 달리해주는 상품이다. 예컨대 채권 월배당 ETF라면 채권은 6개월마다 이자를 준다. 바로 이 6개월마다 나오는 이자를 운용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월마다 나눠주는 식이다.

그럼에도 월마다 당장 현금을 손에 쥌 수 있다는 건 매력적이다. 예측 가능하게 나오는 분배금을 적재적소에 쓰거나 재투자해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월마다 들어오는 현금은 투자자들의 안전판이 돼 준다. 월배당 ETF를 고를 때는 주가수익률과 배당수익률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주가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가면 투자 원금을 잃게 되니 당장 배당을 많이 받아도 제 살 깎아먹기다.

월배당 ETF 투자도 핵심은 '분산'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두 가지 포트폴리오를 추천했다. 안정적인고 꾸준하게 많은 배당금을 받고 싶은 투자자라면 ACE글로벌인컴 TOP10에 100% 투자할 것을 권했다.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마케팅 부장은 "이 상품은 10개의 ETF를 담은 'ETF에 투자하는 ETF'"이라며 "나스닥100 커버드 콜, 리츠, 하이일드 등에 분산투자하는 상품이라 하나만 담아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ACE글로벌인컴 TOP10에 1억원을 투자할 경우 분배율은 7.35%로 당장 월 6만9000원을 손에 쥐게 된다.

반면에 배당을 받으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올

려 투자금을 키우고 싶은 투자자의 경우 '채권 배당성장' 조합이다. ACE 미국배당다우존스와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에 50%씩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다. 전자는 'SCHD'라 불리며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은 다우존스가 발표하는 배당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을 골라 담은 ETF의 한국판이다.

미국 30년 국채의 경우 3%에 달하는 이자 수익 외에도 향후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채권 가격 상승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이 포트폴리오에 1억원을 투자하면 월 29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분배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대신 연평균 성장률을 가정해볼 때 10년 뒤 월 분배금이 45만3000원으로 50%가량 늘어난다

문종현 KB자산운용 차장은 "생활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만큼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주식·채권·대체자산에 5:3:2로 분산투자할 것을 권했다.

KBSTAR 배당킹은 50년 이상 배당이 성장한 기업을 담은 주식 ETF다. KBSTAR 글로벌리얼티인컴은 미국 최대 상업용 리츠와 배당주의 대명사 맥쿼리인프라에 투자한다. KBSTAR 금융채액티브는 금리가 높은 한국내 금융채를 담은 채권 ETF다. 세 상품의 배당률은 3~4%대다. 1억원을 세 ETF에 추천 비율대로 분산투자하면 2025년에는 29만8900원, 2035년에는 월 56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 미래에 분배금이 크게 성장하는 걸 기대해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다.

당장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고른다면 '커버드콜 전략' 상품을 빼놓을 수 없다.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세 운용사는 모두 '커버드콜' 전략을 구사하는 상품을 추천했다. 커버드콜 상품은 분배금을 많이 받는 대신 상승기에는 수익을 쫓아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깎인 투자금을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운용사들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두는 상품들을 추천했다. 안정적인 채권과 섞거나, 전체가 아닌 일부에만 커버드콜 옵션을 사용하는 상품들이다.

"1억 넣으면 월 125만원 꽂힌다" '제2의 월급'에 벌써 4조 꽂혔다



해 오르는 종목에는 옵션을 사용하지 않아 주가 상승도 따라갈 수 있는 상품이다.

안정성을 높이는 선택지는 연 8% 분배금을 주는 리츠(③ Kodex TSE일블리츠(H))와 채권(④ Kodex iShares 미국하이일드액티브)이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은 "일본은 조달비용(금리)이 낮아 리츠 투자가 안정적"이라며 "미국 하이일드 채권은 투자 등급 외 채권이어도 부도 가능성은 낮고 금리는 높아 월배당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상품 세 가지(TIGER미국배당 7%프리미엄, TIGER미국테크 10%프리미엄, TIGER미국30년국채프리미엄액티브(H))에 분산투자를 권했

2 '커버드콜 전략' 분배금 많지만 주가크게움직이면 손실 가능성

삼성자산운용은 커버드콜 ETF를 채권이나 리츠 등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자산으로 분배금을 주는 ETF와 섞어 투자할 것을 권했다. 총 4가지 ETF에 성향에 따라 나눠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다.

당장 많은 분배금을 받고 싶다면 ① Kodex 테슬라인컴프리미엄액티브에 집중 투자하면 된다. 커버드콜 전략에서 옵션 프리미엄(분배금)은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커진다. 주가 변동성이 큰 테슬라를 기초 자산으로 삼은 이 ETF는 연 배당률이 15%로 한국내 최고 수준이다. 대신 채권을 70% 섞어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 상품에 1억원을 투자한다면 월 분배금은 125만원에 달한다. 최근 테슬라 주가 급락에도 Kodex 테슬라인컴프리미엄채권혼합액티브 가격은 그만큼 떨어지지 않았다. 커버드콜 전략과 채권을 70% 섞은 안전성이 발휘되고 있는 셈이다.

3 월배당 ETF 핵심은 '위험 분산' 투자 성향별 다양한 조합 가능

주가와 분배금, 둘 다 노리는 ETF는 ② Kodex 미국배당프리미엄액티브다.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 배당주에 투자하면서 커버드콜 옵션을 사용해 연 배당률이 7%에 달한다. 다른 커버드콜 ETF와의 차이점은 지수 전체가 아닌 개별 종목마다 옵션을 별도로 적용한다는 점이다. 쉽게 말

다. 배당성장주, 테크주, 채권으로 자산은 다르지만 세 상품 모두 연 10~12%의 분배금을 준다. 세계 ETF의 핵심은 커버드콜 옵션을 100%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약 30~50%만 옵션을 씌워, 지수 상승분도 일부 쫓아간다. 세 상품에 1억원을 33%씩 투자하면 당장 월 90만원 정도의 배당을 손에 쥌 수 있다.

5개 운용사 포트폴리오의 공통점은 모두 '채권'을 추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가 고점이고 추가 인상 여지가 적은 만큼 투자금 손실 없이 안전하게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자산운용은 채권에 커버드콜 옵션을 씌운 상품에 1억원을 100% 투자할 것을 권했다. SOL 미국30년국채 커버드콜(합성)은 장기채에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해 연 12%대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1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대략 세전 월 100만원을 손에 쥌 수 있다. 김연주 기자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여 “과세 유예” 야 “ETF 허용”... ‘1억 터치’ 암호화폐 공약 붓물

여야 암호화폐 온도차

총선 앞두고 암호화폐 투자자 공약 국민의힘은 불공정 감독에 무게 뒤 민주당은 과감한 규제 개선에 초점 정책당국, 투기 불붙일까 전전긍긍

‘총선 블랙홀’이 암호화폐까지 정당 공약으로 끌어들이었다. 투자자 상당수가 여야가 공들여야 하는 2040(20~40대) 세대라서다.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게 아니라 과세 시스템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암호화폐가 주목받은 건 ‘대장’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다. 19일 한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9000만 원대에 거래됐다. 지난 11일엔 1억원을 넘겨 원화 시장 기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데다, 다음 달 예정인 비트코인 반감기(공급량 조절을 위해 4년마다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도록 설계한 기간)를 앞두고 있다.

여야는 공통으로 암호화폐의 제도화를 약속했다. 다만 공약의 초점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신중론’에 가깝다.

여야 암호화폐 주요 공약	
<p>국민의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 유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발의 투자자 보호, 공시 및 평가 등 전담하는 ‘가상자산 전담위원회’ 설치 암호화폐 거래소 표준 공시제도 마련 	<p>더불어민주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암호화폐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암호화폐 ETF 편입 암호화폐 매매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공제 한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 암호화폐 거래 금지

18일에서야 공약집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냈다.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매매수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는 게 핵심이다. 암호화폐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하려다가 1년 미뤘고, 다시 2년 미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보완하는 법안을 추가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법으로 불공정 행위를 감독·처벌한다면, 2단계 입법을 통해 암호화폐 업계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공시 및

평가 등을 전담하는 ‘가상자산 전담위원회’ 설치 ▶거래소 표준 공시제도 마련 등도 공약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암호화폐에 열려 있다. 지난달 일찌감치 공약을 내고 암호화폐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하고 ▶암호화폐 매매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했다.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사건을 의식해서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신불리 규제를 풀었다가 위험 자산으로 분류하는 암호화폐가 투기 수단으로 변질할까 우려해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ETF 기초 자산으로 편입하려면 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금융시장 안정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말이 되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암호화폐 과세를 놓고 ‘세금 폭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주식에 붙는 금융

투자소득세는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해놓고서 암호화폐만 예정대로 과세하면 차별 소지가 있다. 그동안 암호화폐 과세를 미룬 건 과세 시스템을 완비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과세 차별 논란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한 점도 작용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암호화폐 과세에 앞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시스템부터 구축해야 한다”며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가이드라인부터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인플레이션이 주는 ‘느낌’이 중요한 이유

폴 도너번의 마켓 니우

2002년 유로화가 도입되자 많은 이탈리아인이 격분했다.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루 밤 사이 밀라노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이 0.52 유로(1000리라)에서 1.00유로로 뛰어올랐다. 이탈리아인은 에스프레소를 즐겨 마신다. 그들은 카페에 들 때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다고 느꼈다. 다른 물품 가격은 오르지 않거나 아주 약간만 올랐지만 연일 오르는 에스프레소 가격에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착각에 빠졌다.

이탈리아에서 벌어졌던 일은 경제적으로는 문제없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왜 정치적으로는 문제인지 잘 보여준다. 올해처럼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는 해에는 정치권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논란으로 키우는가에 따라 금융시장도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은 자주 구매하는 물건의 가격은 잘 기억하지만, 가끔 구매하는 물건의 가격은 쉽게 잊어버린다. 오늘날 일부 품목의 가격은 실제로 내려가고 있다. 한국에서 텔레비전 가격은 2019년과 비교하면 약 15% 저렴해졌다. 그러나 한국의 가구당 평균 식비는 2019년에 비해 30%나 올랐다.

일상 소비재 품목들은 종종 편의를 위해 가격을 ‘반올림’ 처리한다. 이는 구매 빈도가 높은 물건들의 가격 인상 폭이 더 커지는 결과를 낳는다. 이탈리아에서 1000리라 동전을 대신해 1유로 동전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카페 주인 입장에서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 에스프레소를 사는 손님이 동전 하나만 내도록 하는 것이 편했다. 손님 입장에서 가격이 낮은 품목이 큰 폭으로 인상된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에서는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가격 인상 폭이 전체 물가 상승률의 4배를

웃돈다. 가격은 센트보다는 달러 단위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달러 단위로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 상승 폭도 큰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물가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자주 구매하는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과거의 가격을 오랫동안 기억한다. 최대 18개월까지도 기억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공정’하다고 기억하는 가격보다 물건의 가격이 더 높으면 불만을 품는다. 소비자가 시간이 흐르면서 공정한 가격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만, 이는 신속한 과정은 아니다.

이런 다양한 요인 때문에 많은 유권자가 인플레이션이 실제보다 높다고 여기며 불만을 갖게 된다. 정치인이 인플레이션 지표들을 잘 살펴본다면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음을 알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물가가 걱정 수준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은 투표소에서 정치인들을 응징할 것이다.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 수석 이코노미스트

▶▶면 ‘세컨드홈’에서 이어집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만약 세컨드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면 단기 임대를 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훨씬 이득”이라고 조언한다.

무엇보다 세컨드홈 소유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구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싫증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별장을 구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다른 지역으로도 휴가를 떠나고 싶다보니 이중으로 비용을 지불하거나 혹은 세컨드홈 모기지를 갚느라 여행 경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세컨드홈 구입 전 다각도로 고민한 뒤 신중히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고려사항

세컨드홈 구입 시 가장 중요한 결정 사항 중 하나는 두 집 중 어느 곳이 주거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있겠지만 우편물 배달 주소,

유권자 등록카드 주소, 연방 및 주 세금 신고서,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발급지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또 의료서비스 역시 고려해야 한다.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소지한 메디케어는 모든 주에서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자의 경우 타주에서 사용 시 더 높은 공제액과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봐야 한다.

무엇보다 세컨드홈 장만을 계획하고 있다면 일단 원하는 지역에 집을 임대해 단기 거주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특정 계절에 그곳에서 거주할 계획이라면 그 시기에 맞춰 집을 임대해 거주하면서 주변 인프라 및 생활 환경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좋다. 주택이나 아파트 임대는 에어비엔비나 VRBO(vrbo.com)를 통하면 쉽게 예약할 수 있다.

이주현 객원기자

구독 신청 : 703-281-9660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스프링 필드 타운홈
\$670,000
방4, 화3.5, 2 Assigned End Unit, 업그레이드 많이한 집 지하 워크아웃

페어팩스 싱글홈
\$785,000
방5, 화3, Split Level 수리 많이 함 지하 Full Bath, Walk Out

페어팩스 타운홈
\$800,000
방4, 화4.5, 차고2, 2007년산 굿로케이션, 2350 Sf 루프탑덱, 커다란 부엌

리스버그 싱글홈
COMING SOON
방5, 화5, 차고2 4835 Sf 2019년산

페어팩스 타운홈
COMING SOON
방3, 화3.5, 2 Assigned 편리한 교통 전체 리모델링함

어정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배 최고가로 팔아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모든 절약은 이곳에서

2023 Return

A T X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추가 부담금이 5억? 속 들어간 재건축 강행 목소리

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만난 박모(68)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박씨는 이 공원 정문 맞은편에 보이는, 재건축 중인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최근 수개월째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관련 분쟁으로 내년 6월로 예정됐던 준공이 6개월가량 미뤄질 전망이다. 시공사가 3.3㎡당 공사비를 기존 660만원에서 889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시하자 조합은 이를 거부했다. 시공사가 다시 823만원을 제시해 조합은 내달 총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박씨는 “인근 오피스텔에 살면서 아파트 완공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일정 지연으로 월세 비용이 더 들뿐더러 (재건축) 부담금이 확 오를 전망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재건축뿐 아니라 재개발도 공사비 인상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현장은 높다란 타워크레인 14대가 늘어선 채 공사 중단돼 스산한 분위기다. 강북 재개발 최대인 이곳은 시공사가 2017년 선정 때보다 28% 늘어난 공사비를 요구해 조합에 내분이 발생했다. 집값 안정화와 낙후 지역 개선의 실마리인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이 공사비 문제로 곳곳에서 멈추거나, 잠음을 내고 있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최대 걸림돌이던 초과이익환수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 부담금 완화 쪽으로 개정돼 오는 27일 시행을 앞뒀고, 진입 문턱인 안전진단도 사실상 사라졌다. 사업들이 순항할 것으로 기대됐는데 공사비 압축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 금천구 남서울리키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최근 예비심판사로부터 추정 공사비가 3.3㎡당 950만원으로 올라 가구당 추정 부담금이 최대 8억 8000만원이라는 견적을 받았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도 전용면적 31.98㎡를 보유한 조합원이 84㎡ 분양 때 5억원의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건설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폭등한 원자재값과 인건비 때문에 공사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3.3㎡당 평균 480만3000원이던 국내 도시정비사업 공사비는 지난해 687만5000원으로 3년 사이 43% 올

공사비 분쟁에 휩싸인 재건축·재개발 지역 자료: 업계 종합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	서울 금천구 남서울리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서울 성동구 성수전락정비구역 1지구	서울 서초구 신반포27차
공사비 인상 갈등으로 올해 초 공사 중단	공사비 70% 인상 한국부동산원 검증 착수	공사비 인상 갈등으로 준공 예정일 연기	가구당 추정 부담금 최대 8억8000만원 책정	전용 31㎡ 기준 추가 부담금 5억원 책정	아파트 설계안 변경 (70층 이상~50층 미만) 합의	시공사 선정에서 유찰, 2차 입찰 공고

서울 강북권의 한 재개발 사업 지역 공사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 관련 분쟁에 따른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서울 강북권의 한 재개발 사업 지역 공사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 관련 분쟁에 따른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추정 부담금 2020~21년 대비 2배
채산성 낮아지자 시작부터 머뭇
1기 신도시 5곳도 큰 움직임 없어
시공사도 몸 사려 유찰 사례 속출
공사비 탓 사업 지연·중단 계속 맨
주택공급 늦어져 집값 들쭉날쭉

랐다. 2020년 1.8%에 불과했던 건설 중간재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전년 대비)이 2021년 27.3%, 2022년 6.2%를 기록하는 등 건설 물가가 경증된 탓이다.

또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건설업 근로자의 하루 평균 임금은 27만789원으로 2021년 상반기(23만1779원) 대비 16.8% 올랐다.

공사비 부담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원자재값의 급등세는 진정됐지만 떨어지지 않고 있고, 한 번 오른 인건비는 구조적으로 매년 오를 수밖에 없다. 그사이 신설된 각종 규제의 영향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021년 시행된 레미콘 토요 휴무제 등 규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 기간이 3~6개월씩 늘었다”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2022년 시행된 중간소매 사후확인제와 중대재해처벌법(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자가

50인 미만에선 올해 적용)도 마찬가지다. 업계는 이로 인한 전체 공사비 원가 상승률이 15%를 웃돌 것으로 추정한다.

이 때문에 내년 도시정비사업 공사비는 3.3㎡당 1000만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공사비 부담이 급증하고, 집값도 2021년 고점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채산성이 낮아지자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곳에서 시작부터 머뭇거리고 있다. 경기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5곳은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있지만 주요 단지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다. 지난해 말 안전진단 문턱을 넘은 서울 목동도 마찬가지다. 해당 지역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추정 부담금이 2020~21년 대비 거의 2배라 사업 추진을 강행하자고 목소리를 내는 조합원이 없다”고 전했다.

이러다보니 공사비가 많이 드는 초고층 고사양의 설계를 포기하는 사례

도 속출 중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전락정비구역 1지구는 부담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아파트 설계안을 70층 이상에서 50층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사업 초기 단계인 곳은 시공사를 구하는 것부터도 문제다. 건설사들이 높은 리스크로 낮은 수익성이 예상되는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고 있어서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27차 재건축조합은 1차 입찰에서 시공사 선정에 실패한 뒤 지난달 2차 입찰 공고를 내면서 3.3㎡당 공사비를 기존 907만원에서 957만5000원으로 올렸다. 송파구 잠실우성4차는 벌써 두 차례 유찰돼 지난달 3차 입찰 공고를 냈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부담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전반적인 도시정비사업 진척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나 주택 경기 반등 등 일부 호재는 예상되지만, 이미 크게 오른 원자재값이 극적으로 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하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4년간 건자재 PPI 상승률은 35.6%로 전체 PPI 상승률인 22.4%를 크게 웃돌았다”며 “건설 수주와 착공 건수 감소로 올해 건자재 가격이 하락했지만 소폭 하락 폭은 시멘트 -1.0%, 철근 및 봉강 -1.9% 등이라 가격 하락 폭도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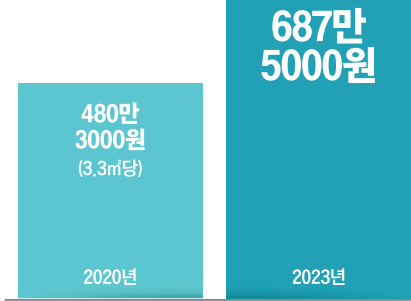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정부가 건자재 시장 정상화 등 도시정비사업의 ‘간접적 지원’ 정책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윤 정부의 주요 주택공급처인 만큼, 사업 지연으로 공급이 늦어지면 집값을 들쭉날쭉하게 만들 수 있다. 이종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안정적인 건자재 수급을 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사와 건자재 생산사가 원자재값 변동과 수급 애로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 운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건자재 시장 경기조사회도,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수급 예측 시스템 개발도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창균 기자

전국 도시정비사업 평균 공사비

자료: 주거환경연구원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역조물) 웨일리노래방
300m
뉴타운

미라조 몰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융자는 그린웨이 펀딩 그룹 **배준원** 융자에 맡겨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reenwayhomeloans.com
(NMLS# 178471)

미팅 모임 장소가 필요하세요?
센터빌 오피스 미팅룸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월-토)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허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FUNDING GROUP, INC.
VA, MD, DC, NC, DE, TX, PA, WV, GA, SC, FL

Greenway Funding Group,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ISB, Maryland State DL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Delaware Office of the State Bank Commissioner,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West Virginia Di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Georgia Department of Banking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Finance License Numbers: DC MLB 1108895; MD 06-20926; NC 161472; VA MC-2771; DE 03648; TX: PA 101075; WV ML-1108895; MB-1108895; GA 1108895; SC 1108895; FL MLD2368 Greenway Funding Group Inc. NMLS# 1108895
www.nmlsconsumeraccess.org

약척같은 부동산
비키리

3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십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콘도

방2 + 화2

\$410,000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타운홈

방3 + 화3, 차고 2

\$800,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3 + 화3.5
1,496 sqft, 1993년

\$535,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3 + 화3
1,360sqft, 1985년

\$500,000

약척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15년 연속 북버지니아협회 선정
다이아몬드 클럽 탑에이전트

브로커 비키리

NVAR Lifetime Top Producer
VA · MD · DC 브로커 면허소지

vikkilee@AmplusRealtyllc.com
www.AmplusRealtyllc.com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용자 칼럼

Gift



배준원
그린웨이 펀딩그룹 부사장

오늘만큼 오른 주택가격에 여전히 높은 이자율까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이들에겐 부담이 쉽게 가라앉질 않다보니 최근 트렌드는 아무래도 가급적 다운페이먼트를 많이 하고 용자를 적게 얻는데 있는듯 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늘어난 다운페이먼트를 여러 루트로 충당하곤 하는데 특히 최근 기프트 머니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인 것 같다.

오늘 지면을 빌어 주택용자에 있어서 다운페이먼트나 클로징 비용등에 많이 활용되는 Gift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사실 우리 한인들에게 있어 기프트 머니의 의미는 “증여”로 많이 인식되곤 하는데, 한국에서의 증여, 상속 이런 단어들은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의미로 전달되곤 한다.

웬지 모르게 불안하고 또, 자칫 잘못하다간 세금폭탄을 맞지 않을까 우려도 되곤 한다. 이러한 선입견 때문일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증여, 상속하면 세

금폭탄 을 연상하면서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 미국과 한국의 증여에 관한 세법의 차이점을 알면 그러한 걱정이 기우에 불과하게 될것이다.

Gift, 영어 단어 의미 그대로 번역하면 “선물” 이다. 한국에서는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 즉 돈을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다.

Gift 의 사전적 의미인 ‘선물’에 충실하듯이 말그대로 선물처럼 받는이는 그냥 기쁘게 받기만 하면 되는것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연간 개인이 개인에게 주는 기프트 머니의 면세한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연간 면세한도와 평생면세한도, 즉 annual exclusion과 life time exemption이다. 우선 세금보고에 신고조차할 필요없는 연간 면세한도 (Gift Tax annual exclusion)가 2024년 기준으로 \$18,000 이다. 그리고 개인이 면세로 기프트를 줄수 있는 평생

한도(gift tax life time exemption)이 \$13,610,000에 달한다.

즉, 증여를 할때 일년에 \$18,000까지는 누군가에게 기프트 머니를 주더라도 세금을 낼 필요도 없을뿐더러 세금보고시에 신고조차할 필요도 없고, 실사 만일 \$18,000을 넘는 금액을 기프트로 주더라도 다음해 세금보고시에 form 709 를 통해 세금보고상에 신고만 한다면 평생에 걸쳐서 \$13,610,000까지는 증여세 라는것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18,000까지의 기프트 머니는 세금보고상에 신고조차 할 필요없는 연간 면세 한도이다보니 가끔씩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연간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를 할때 굳이 개인 연간 면세 기프트 한도를 넘기지 않으려고 억지로 무리수를 두면서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18,000 이하의 금액으로 여럿 명으로 나누어 자식에게 기프트를 주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부모가 주고자 하는 기프트 머니의 출처가 정말 불법자금인 아닌 마당에야 그냥 떼뻑이 자식에게 간단히 한번에 증여를 하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여차피 평생에 세금낼 필요없이 줄수 있는 한도가 \$13,610,000 이나 되다보니 대부분의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피부로 와닿고 느껴지는 액수가 아닌 남의 나라 이야기로 전해지기 때문이라.

다만 \$18,000이 넘는 기프트는 다음

해에 세금보고시에 form 709를 통해서 신고만 하면 되는데, 아직도 많은 이들이 신고하는 것을 걱정하는 이유가 혹시나 증여를 많이 하면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또 세금보고에 기록으로 남으니 나중에 불리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때문이다.

사실 기프트로 주는 돈을 다음해 세금보고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평생에 걸친 기프트 한도를 과연 초과하는지를 위한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함뿐이다. 오히려 미리 겁먹고 여러사람명의로 이리저리 돈을 돌려서 자금을 이동시켜 나눠서 받는것이 더 수상하게 보일수도 있고, 그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한다.

필요이상으로 여러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금을 이리저리 나눠서 이동시키다가 은행으로부터 suspicious activity로 의심을 받게되면 오히려 이 때문에 여러 불이익등을 당할수도 있음을 꼭 유념해야 한다.

>문의: 703-868-7147

주택시장에 미치는 외부 요인

부동산 플랫폼인 레드핀은 2024년 금리가 인하하고, 집값도 1%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반가운 전망을 발표했지만, 한편으로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올해는 11월 5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 대규모 해의 전쟁, 구글, 아마존 등 잇따른 기업들의 해고 발표 등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경제를 연착륙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로 가득 차 있다.

다가오는 선거 등 외적인 요인들이 부동산에 미치는 몇 가지 주요 요인과 잠재적 영향을 살펴보자.

집을 사고파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하는 가장 큰 금융 거래 중 하나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들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가 걱정되어 주택 시장에서 손을 떼고 그 자리에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도 불확실성은 경제를 둔화시켜, 투자 결정을 늦추거나 멈추어 소비자 지출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선거는 재정 및 통화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낮은 이자율은 대출을 더 저렴하게 만들어 잠재적으로 주택 수요를 자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거는 정책 변화, 시장 불확실성, 저렴한 주택 계획 및 금리 변동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정책을 갖춘 새 정부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모든 불안으로 인해 일부 예비 구매자와 판매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과 관계없이 일시 중지

버튼을 누를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11월이 다른 해보다 주택거래의 양이 떨어진다고 한다. 주택판매는 11월을 제외하면 선거가 없는 해에 비해 변동이 없다.

그리고 실업률이 주택시장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주택 시장에 대한 또 다른 위협은 경기 침체로 인한 높은 실업률이다. 직업의 안정은 소비자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실업을 걱정하면서, 다운페이먼트에 필요한 많은 현금과 15~30년 동안 모기지 지불을 책임져야 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전쟁은 미국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치명적인 전쟁은 미국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쳐 모기지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천연자원과 무역 중단이 발생한다면 그때가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상품 가격과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것이고,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고 모기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희망을 버려야 할 수도 있다. 중동 지역의 분쟁이 확대되면 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역전될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의견을 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여전히 집을 사려는 사람이 더 많다.

미셸 원 BEE부동산 부사장

투자용 부동산의 리스 분석

부동산을 투자하는 많은 투자자는 금융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률의 극대화를 위하여 은행 및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을 고려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대출 용자 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중점을 두는 여러 요소 중 리스 계약의 상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오피스 및 리테일 같이 중장기 테넌트를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대출 심사 시, 건물의 모든 수익은 입주한 테넌트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리스 계약의 상태는 용자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는 대출기관 뿐 아니라 건물을 구매하는 투자자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첫째로, 용자기관은 리스 계약을 분석하며 테넌트의 신용도를 주요 지표로 삼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테넌트의 경우 얼마나 오래 비즈니스를 했는지와 페이먼트 히스토리, 비즈니스 택스 리턴, 그리고 오퍼의 크레딧 등을 통하여 테넌트의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남아있는 리스 기간의 길이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리스 기간이 길게 남아있다면 안정적으로 테넌트를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리스 계약이 만료가 된다면, 리스 계약 갱신 혹은 새로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공실 기간이 발생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투자기관들의 경우 오피스 및 물류창고 투자시 테넌트들의 남은 평균 임대기간이 10년이 넘는 경우만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투

자용 부동산에서 남은 리스 기간은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셋째로, 리스 만료 시기를 검토합니다. 여러 테넌트의 리스 만료 시기가 다양할수록 용자기관에 게 더 선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리스크 분산과 지속적인 수익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넷째로, 테넌트 임대료가 지역 평균과 비슷한지를 검토합니다. 지역 평균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있다면, 추후에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건물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특수한 이유로 지역 평균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테넌트가 렌트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이 테넌트가 나간 이후 계속해서 임대료를 같은 수준으로 받지 못할 경우 건물 가치 하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임대료 상황은 검토 대상입니다.

다섯째로, 테넌트 구성의 적합성입니다. 테넌트가 해당 지역에 적합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비즈니스가 입주해 있는지도 평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테크놀로지의 발전, 원격 근무의 증가, 그리고 소비자 행동의 변화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용자를 준비하는 건물주와 투자자는 이러한 최신 트렌드와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자신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테넌트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브랜트 구-CBRE KOREA DESK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추천 주택 리스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세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COMING SOON Bowie 싱글홈	 COMING SOON Columbia 타운홈, 방3, 화2.5	 COMING SOON Millersville \$559,000 싱글홈, 방3, 화4, 차고2	 COMING SOON Perry Hall 싱글홈, 방3, 화2.5	 COMING SOON Ellicott City 싱글홈, 랜처 스타일, 내부수리 좋은 학교, 0.75 에이커
 COMING SOON Cockeysville 싱글홈, 방4, 화2.5, 내부수리중	 UNDER CONTRACT Hanover \$490,000 타운홈, 방4, 화3.5, 차고1	 UNDER CONTRACT Odenton \$489,000 싱글홈, 방3, 화2, 즉시입주 가능	 UNDER CONTRACT Frederick \$386,000 타운홈, 방3, 화3	 COMING SOON Cockeysville 싱글홈, 방4, 화3, 내부수리중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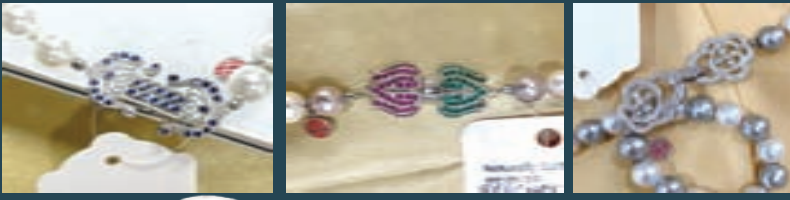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을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대해 도와드리겠습니다.

 COMING SOON Elkridge 월 \$2,800 타운홈 방4, 화장실3, 차고1	 RENTED Baltimore 월 \$2,400 타운홈 방4, 화장실4	 RENTED Germantown 월 \$2,400 타운홈 방3, 화4	 RENTED Glen Burnie 월 \$1,850 콘도 방3, 화2, Top Floor	 COMING SOON Hanover 월 \$3,000 타운홈 방3, 화3, 차고2	 COMING SOON Odenton 월 \$2,500 타운홈 방3, 화3, 차고
---	--	---	--	--	---

남양진주보다 더 매혹적인 일본산 인공핵진주!!

핵진주란, 대왕조개로 만든 핵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진주 에센스를 여러번 코팅한 인공 진주로서, 최고급 남양 진주의 광택을 지녔고, 가격이 천연 양식 진주에 비해 월등히 합리적입니다. 정코의 일본산 인공핵진주 제품들을 만나보세요.



진주 컬러에 맞춘 다양한 디자인의 세계최고수준 한국세공 및장식을고배 주얼그림 에서 만나보세요.

진주, 칼라스톤 세트류가 "와우~ 물반 고기반이네!"

Rings Heaven 애난데일과 엘리콧시티에서 펼치는 보석쇼

“무조건판다!” “무조건반값!”

새봄맞이 압도적 진주, 칼라스톤 1200세트 전격 출시!!

천연양식진주 / 인공프리미엄 핵진주 / 홍산호 / 각종 칼라스톤 /

MOISSANITE
대형사이즈 모이사나이트
3캐럿 및 5캐럿

"유일하게 다이아몬드를 능가하는 보석 모이사나이트"

모이사나이트는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경도, 보타나온 광택, 분산율을 가지고 있으며 영원이 반짝이는 영롱함을 잃지않는 강인한 보석입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즈의 다이아몬드 가격보다 최대 10분 1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하여, 소아프하고 합리적인 쇼핑을 선호하는 신여성 고객님들께서 찾으시는 보석입니다.

전품목 한정판매! 매진임박!

반지천국에서 아심차게 준비한 모이사나이트 특가전!
자긱자긱 볼경기! 모이사나이트반지로 기분 UP!



전품목 한정판매! 매진임박!

선물용으로 좋은 브로치 특가 세일

인공핵진주 브로치 **무조건 \$100부터**
칼라스톤 명품 브로치 **무조건 \$350부터**
천연바로크진주 브로치 **\$350 ~ \$450**

KJ 그룹 대부분 제품은 레이저공법과 수제품으로 서울 강남 공방에서 세공됩니다. 앞서가는 디자인 정교하고 세련된 세공으로 미주 전지역에서 모든 한인여성들 에게 인정 받는 **KJ 그룹 대세일의 기회**를 놓치지마세요.



버지니아 행사일정
일시: 2024년 3월 20일(수)-22일(금), 단 3일간
장소: 한민 커뮤니티 센터 2층 특설매장
6601 Little River 2nd fl Tpk Alexandria VA 22312

볼티모어 행사일정
일시: 2024년 3월 23일(토)-24일(일), 단 2일간
장소: JJ 골프 숍 특설매장 (서울폴대지 음식점 옆)
10045 Baltimore National Pike A12 Ellicott City MD 21042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합니다.



새 유니폼 입는 K축구... 이강인도 새 결심

지난달 아시안컵 기간 선배들과 물리적 충돌을 벌였던 이강인(23·파리생제르맹)이 태극전을 앞두고 축구대표팀에 합류했다.

지난 18일 몽펠리에와의 경기에서 파리생제르맹(PSG) 유니폼을 입고 골을 터뜨린 이강인은 19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출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강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 숙여 팬과 취재진에 인사한 뒤 대표팀 숙소로 이동했다. 그는 2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대표팀 훈련을 앞두고 자신의 심경을 밝힐 예정이다.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 차갑게 식은 팬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표팀은 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태국과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차전을 치른 뒤 26일엔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으로 옮겨 태국과 4차전을 벌인다. 주장은 여전히 손흥민이다.

이강인은 지난달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주장 손흥민과 몸싸움을 벌여 많은 축구 팬의 질타를 받았다. 그래서 이번 대표팀에 합류하는 이강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올해 초 아시안컵 준비 기간 대한축구

협회 직원과 일부 선수들이 카지노에서 쓰이는 칩을 놓고 카드놀이를 한 사실까지 알려져 또다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표팀 내 분위기는 무겁다. 황선홍(56) 임시 대표팀 감독은 훈련장 문을 굳게 잠근 뒤 태극전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팀은 19일 고



1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이강인. 아무 말 없이 고개 숙여 팬들에게 인사한 뒤 대표팀 숙소로 향했다. 2 황인범(오른쪽) 등 축구 국가대표팀이 21일 월드컵 태극전을 앞두고 훈련을 위해 고양운동장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훈련은 비공개로 했다. [뉴시스]

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지난 1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대표팀의 첫 소집 훈련도 초반 15분만 공개했다. 그동안 대표팀은 홈에서 열리는 A매치(국가대항전)를 앞두고는 한두 차례 이상 훈련 과정을 취재진에 공개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엔 비공개 훈련을 하기로 했다. 훈련을 앞두고 선수 한두 명이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이번엔 이런 절차도 없다.

황 감독은 “선수들과 이야기해보니 (외부의 시선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또 심적으로도 힘들어하고

축구대표팀 새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

있다. 취재진과 팬 여러분께서 우리 선수들이 좀 더 집중해서 경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황 감독은 또 “(손흥민과 이강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듣고 싶고, 앞으로 생각을 듣고 싶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 이후에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짧은 시간이지만,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생각에) 다들 공감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을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한축구협회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새 유니폼을 공개했다.

홈 유니폼은 한국 축구의 상징인 붉

은색이 패턴으로 반영됐다. 깃과 소매 부분에는 단청 문양을 떠올리는 이중 테두리를 배치했다. 깃에 새겨진 호랑이 발톱 자국은 한국 대표팀의 위엄과 매서움을 표현한다.

원정 유니폼은 전통과 진보의 조합을 상징한다. 나전칠기를 재해석해 짙은 검은색과 진주색 디지털 패턴을 함께 배치했다. 원정 유니폼도 홈 유니폼과 동일하게 깃 부분에 호랑이의 발톱 문양을 새겼다. 나이키는 “한국의 전통 예술과 장인 정신에서 착안한 디자인이 새로운 세대에 대해 축구에 대한 빛나는 영감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주영 기자

일본 지상파 드라마에 한국어가 자막도 없이 나오네

“좋아해요.” “이 눈, 빠져들 것 같아.”

지난 1월 말부터 일본 지상파 TBS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아이 러브 유’(EYE LOVE YOU·사진)에 한국어가 자막 없이 흘러나온다. 드라마는 한국인 유학생 태오(채종협)와 일본인 직장상사 모토미야 유리(나카이도 후미)의 로맨스물이다. 눈으로 사람들의 속마음을 읽는 유리는 한국어로 생각하는 태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궁금해하다가 점점 태오의 매력에 빠져든다.

제작진은 시청자들이 한국어를 모르는 유리의 답답한 심정에 감정 이입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국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냈다. ‘귀여워’ ‘사랑해’ 등 태오의 속마음을 유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둘의 로맨스에

도 불이 붙는다.

드라마에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요?” “(꽃을)오다 주웠다” 등 한국식 구어 대사가 등장하고, ‘간장공장 공장장’을 일본인이 따라하는 장면도 나온다. ‘K감성’을 섬세하게 그려내기 위해 TBS 내 한국인 직원인 차현지 프로듀서가 제작에 참여했다.

드라마 인기로 합입어 극중 주인공이 먹는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아이 러브 유’ 카페가 도쿄 시부야에 생겼고, 주인공들이 사용하는 라인 이모티콘이 출시됐다. 20일엔 현지에서 팬미팅 행사도 열린다.

배우 채종협도 일본에서 스타가 됐다. ‘흡사마’란 별명도 얻었다. 극중 태오가 사는 집 부근은 관광 명소가 됐

고, 최근 서울 북촌에서 촬영할 땐 일본 팬들이 몰려 촬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한국어 대사와 한국 문화가 스며든 일본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것에 대해 이동규 동덕여대 방송연예과 교수는 “문화 소비 방식이 ‘가공’이 아닌 ‘직수입’으로 바뀐 결과”라고 봤다.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 유통이 직접적으로 이뤄지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트렌드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다.

한국어 콘텐츠와 문화를 그대로 소비하는 건 예능과 음악 분야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일본 넷플릭스는 ‘K-드라마 같은 사랑을 하고 싶어’라는 리얼리티 예능을 방영했다. 한국에 온 네



명의 일본 여배우들이 오디션을 거쳐, 한국 남자 배우들과 연애 시리즈에서 연기하는 과정을 담았다.

세븐틴은 미니 11집 ‘세븐틴스 헤븐’으로 일본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12일자) 정상에 올랐다. 르세라핌 또한 미니 3집 ‘이지’로 같은 차트(4일자)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일본어 앨범이 아닌, 한국어 앨범으로 거둔 성과다.

현지 음악상도 국내 가수들이 휩쓸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 연말 TBS ‘일본 레코드 대상’에서 한국어곡 ‘디토’ ‘뉴진스’ ‘ETA’ 무대를 꾸미고 우수작품상과 특별상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뉴진스는 또 지난 13일 일본레코드협회가 발표한 ‘제38회 일본 골드디스크 대상’에서 라이즈·르세라핌과 함께 아시아 부문 ‘베스트3 뉴 아티스트’에 선정됐다. 오는 8월 열리는 일본 대표 음악축제 ‘서머소닉 2024’에는 악뮤·베이비몬스터가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는 “한류의 진화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1999년 가수 보아로 일본 내 한류가 시작된 이래 현지 언어로 일본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필수였지만, 25년이 흐른 지금은 K콘텐츠의 위상 등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황지영 기자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give it a shot; ~를 처음으로 시도해보다

(Mark is talking to Allan on the telephone~)

(마크가 앨런과 통화하고 있다~)

Mark: Allan, are you still looking to make some extra money?
 마크: 앨런, 아직도 부업 거리를 찾고 있어?
 Allan: Yes. Like I told you I don't make enough at my part-time job.
 앨런: 응. 얘기한 것처럼 파트타임으로는 충분히 돈을 못벌어.
 Mark: Well, I need someone to work six hours on Saturdays and Sundays.
 마크: 내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6 시간 일할 사람

이 필요하거든.
 Allan: What I would be doing?
 앨런: 내가 뭘 하게 될까?
 Mark: I need you at the cash register.
 마크: 계산대에서 일해줬으면 해.
 Allan: I never worked as a cashier before.
 앨런: 캐시어로 일해본 적은 없는데.
 Mark: I'll train you. You'll pick it up fast.
 마크: 내가 가르쳐줄게. 금방 배울 거야.
 Allan: Okay. I'll give it a shot. When do you need

me to start?
 앨런: 알았어. 해볼게. 언제 시작할까?
 Mark: How about next Saturday at 9:00? How does that work for you?
 마크: 다음 토요일 9시는 어때? 괜찮을까?
 Allan: That's fine. I'll see you Saturday at 9.
 Thanks for thinking of me.
 앨런: 좋아. 토요일 9시에 보자구. 기억해줘서 고마워.

기억할만한 표현
 ▶ is (one) still ~: 아직도 ~ 하고 있나요?
 "Are you still working downtown at the bank?"
 (아직도 다운타운 은행에서 일하십니까?)
 ▶ pick it up fast: 아주 빨리 배우다
 "My son can ride a bicycle now. He picked it up fast."
 (우리 아들이 이젠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아주 빨리 배웠어요.)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가로열쇠

(1)같은 학교를 같은 해에 나온 사람 (4)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음. 간섭하거나 거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둠 (7)어떤 수량이나 분량을 두 번 합한 것. 배 (8)뒷발로 직립했을 때의 키는 2~2.3미터 정도이고, 두 팔을 벌렸을 때 나비는 약 3미터 정도이며, 체중은 150~290킬로그램 정도이다. 아프리카의 숲에 산다 (10)소변의 저장과 배출을 담당하는 속이 빈 주머니와 같은 기관 (11)학교에서, 견학을 겸하여 야외로 갔다 오는 일 (12)어려움과 쉬움의 정도 (14)부드럽게 굽은 선 (16)검붉은 액체 조미료 (17)아버지의 친형제자매의 아들이나 딸과의 혼수 (18)지나치게 많이 먹음 (20)한 명의 소리꾼과 한 명의 고수(북치는 사람)가 음악적 이야기를 엮어가며 구연(口演)하는 우리 고유의 민속악 (22)씩씩하고 굳센 기운. 비록 졌지만 ~를 잃지 말고 다음 게임에 대비하세요 (23)살갓 (24)오랫동안 앓고 있어 고치기 어려운 병 (26)실크 (28)쓴 것이 다하란 단 것이 음. 고생 끝에 즐거움이 음 (29)바람 앞의 등불. 사물이 매우 위태로 운 처지에 놓여 있음. □전□□

세로열쇠

(1)육십갑자가 같음. 같은 나이 (2)까무라칠 정도로 몹시 놀라 질겁을 함. □□□□ (3)물건을 보관하는 건물 (4)궁중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밥 (5)한 군데도 빠짐이 없는 모든 곳. 만세 소리는 삼천리 ~에 퍼져 나갔다 (6)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의 경치, 유적, 풍속, 풍물 등을 구경하는 것 (9)이어달리기 (11)어린이가 아프면 가는 곳 (12)여러 사람이 뒤엎겨 뒤죽박죽이 된 곳 (13)다 익지 못한 채로 떨어진 과실 (15)바람을 일으키는 가전제품 (19)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 (21)아이들이 자질구레한 그릇 따위의 장난감을 가지고 삼림살이하는 흉내를 내는 짓 (22)용이 살아 움직이는 것같이 아주 활기 있는 필력. □사□□ (23)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측의 당사자. 형사 소송에서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 (24)지구 상에서 가장 큰 동물. 수중생활을 하므로 포유류이면서도 물고기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25)바람을 막거나 무엇을 가리거나 또는 장식용으로 방 안에 치는 물건. 전통 혼례 때 ~을 치고 하죠 (27)목이 짧아 발목 아래로 오는 구두

스도쿠

			1				7	
	9	3					1	6
1	8		4	6	7		9	
		2		8	1	5		9
			9	4		2		
	3					1		8
	6	9	8		5		2	4
4	5	1	2	7	9			
			7			4	9	



자료제공 = 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1	5	6	4	8	9	2	7	3
3	8	9	6	2	7	1	5	4
4	2	7	5	1	8	6	9	3
8	9	1	2	5	7	4	3	6
7	3	2	9	4	6	8	1	5
6	4	5	1	8	3	2	7	9
2	9	6	3	7	4	5	8	1
9	1	4	8	2	5	3	6	7
5	7	8	3	6	1	9	4	2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카드 유효 기한 (EXP. DATE): / / CVS: <input type="checkbox"/>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도박**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미주무시 미 전역 무료 딜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예약대입 **703-354-1515**
2층 오픈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3월 스페셜 SALE

안마의자 할부도 건강마을이 하면 특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48개월 특별한 비용으로 할부 구매하세요.

바디프랜드 글로벌 3대 디자인 어워드 석권! 세계가 인정하는 바디프랜드를 경험하세요!

이제 전신 마사지는 물론 **브레인 마사지까지!**
MENTAL MASSAGE **브레인마사지 특허**

하루의 피로가 **짜~악** 구석구석 뭉친 근육이 **짜~악** 날아갈 것 같은 개운한 하루! 큰맘 먹고 사길 참 잘했어요!

자신 있게 선보이는 신제품 **품격 있는 메디케어 안마의자**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경험해보세요.

Pharaoh S II BLACK EDITION
파라오 S2
블랙 에디션의 특별함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특별한 기능이 더해져 더욱 품격 있는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팬텀2 **캘리스2**

일시불 구입시 반신욕기 드립니다.

첫 발을 뗐다 **마침내 자유 팬텀 로보!**

안마의자인가 의료가기인가
바디프랜드의 전신마사지 기술로 안마의자, 의료가기가 된다!

PHANTOM ROVO
새로운 기술 · 새로운 움직임 · 새로운 재미
관절에 문제 있으신 분들께 마사지와 자전거각기 운동을 동시에!

PHANTOM Medical

5 YEAR 레전드 마사지체어의 진화! 파라오S2 블랙에디션

KOREA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인증

어떤 공간에도 부담 없이 어우러지는 팔콘

더욱 완벽하게 진화한 바디프랜드만의 로보워킹 테크놀로지
좌우 다리 독립구동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로보워킹으로 스트레칭 효과 UP!

- 새로워진 8가지 로보케어워킹 프로그램
- 최적화된 XD 마사지 모듈
- 쉽게 조절할 수 있는 킥다이얼
- 24가지 다양한 안마 프로그램
- 폭신한 에어백
- 손지압 패드
- 강화된 안전센서
- 3단계 온열
- 자동 체형 인식
- 다리길이 자동 조절

내 집에 **쓱** 내 몸에 **쓱**

지금껏 달지 못했던 코어근육 스트레칭 효과! **로보워킹 테크놀로지**

Compact & Perfect **헬스케어로봇 팔콘**
\$4,999

BODYFRIEND

오래된 안마의자를 **특가 세일** 바꾸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무조건 최고의 가격 보상판매로 즉시원히 알아해 드립니다.

Osaki PRO 4D MAESTRO LE **Osaki PRO 4D EMPEROR**
뉴프리미엄 4D 안마의자

건강마을 **파격 할인** 가격을 확인하세요.

휴표 휴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휴표 휴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명품 매트입니다.

원적외선 명품매트 **\$1,199** (원시리즈)
싱글시리즈 **\$899**

▶전면: 고급 인조 양털
▶후면: 고급대(竹) 자리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워던 지정 대리점

월던편백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질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 그대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리오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발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8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방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임정기념 세일 ~~\$1,799~~ **\$1,499**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3 간당 편리한 작동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 거기를 배우고 따름을 독재!

슬드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 1위 차지

일월 개회용매트

2020년형 업그레이드 일월매트-의 자부심 반영한 원적외선 매트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기모크세사 이리월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위생용 매트로 용이하게 닦을 수 있는 7중 안전시스템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세알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속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용罄/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김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는 온수 매트로 Safety Zone

3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① 위싱턴 중양일보

직원 모집

워싱턴 중양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 분야: 광고 영업 0명
사무직 0명
- 기본 MS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보내실 곳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코웨이 DC 지점
직원 모집

• 코웨이 코디/코닥
•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 4대 보험 전액 지원
• 자율적인 근무시간
• DMV 지역 (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 (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출광료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위싱턴 중양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양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양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마케팅〉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종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사무소

-폴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분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폴/파트타임 이종언어

사무직 유급휴가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콧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코웨이 DC 지점 정규직 직원 모집

코웨이 코드 / 코닥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4대 보험 전액 지원

-자율적인 근무시간

-DMV 지역 (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유재신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 Email: employeehire13@gmail.com

식당 장비 세일즈 하실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 하실분. 경력자 우대.

각종 지원 프로그램 과 수당.

문의: 571-332-2101(문자) 또는

edk.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희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키징/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폴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사무실

파트타임/폴타임 직원모집

학생 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가

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제품 및 스티플라이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종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 경험 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 경험 좋은

인성과 세심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 원하시는 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 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 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타이슨스 코너 밑에 위치한 시계 및

주얼리 리퍼어샵에서 영어 능통한 세일즈

하실분 구합니다. 파트타임 & 풀 타임

571-633-0766 / fastfixusa@gmail.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종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무 경험자 구함.

albert@w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luvacct1986@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폴/파트타임

유경력 여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트/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ux Plus Full/ Part Time

No exp. require 이종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 오피스 프론트 일하실 성실하신 분

구합니다. resume 보내 주세요

slim@gastrohealth.com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종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 가능하신 분

연봉 5만(현지 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취업기회)

영주권스폰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티어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직원모집

*College Park Area, MD

- Shift Manager 교대근무관리자

사무실 관리자/정육부 관리자/ POS 지원/

Pricing Analyst/ Lead Cashier

*Capitol Heights Area, MD

- 사무보조: 이종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 301-333-2209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폴/파트타임 (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몰에서 5분거리

Text: 703-371-1263, 703-899-5098

볼티모어 지역에서 초보 자스 & fried

chicken / 파트타임 & 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애난데일 치맥에서 서버, 캐쉬어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슈페이

571-352-4938/Chimc.va@gmail.com

스프링필드 베이글샵에서 빵꾸우실분 구함.

파/풀타임 월-토, 스프링필드에서 5분거리

703-371-1263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베트남 식당.

주 2일 일하실 서버구함. 초보자도 환영.

240-678-5395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중앙일보**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일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정비소 메케닉 일하실 분 폴스처지
703-577-5866

첸트리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계 맡아 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HD Plus Construction
말뭉침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캐번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프로젝 매니저 (이중언어)
좋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구인/구직>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테이커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마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ccdc.edu
www.ccdc.edu

락빌에 위치한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집합니다
-자격: 성악전공 / 지휘전공 / 음악전공(지
휘경력)
-제출서류: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
기소개서
-제출할 곳: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703-798-7270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 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건물관리인 (월-토), 스폰서 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 분
연락: 240-903-0777

Burke에 위치한 Gift Shop에서
Valentine's Day Week (2/13 and 2/14)
동안 일하실 구합니다.
이메일: joymiahian0629@gmail.com

피아노 주일예배 (11시) 반주봉사할 분
웨어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래더우드,
202-271-2726

버크 태권도 사범/보조사범 (파/풀타임),
방과후 선생님 구합니다
571-243-7027 (문자)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베이비시터 구함 Vienna, 주5일, 1-6pm,
아기 픽업가능한 분, 성실한 분
213- 839-3735

밤10시부터 청소 하실분들.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버지니아 센터빌
410-825-7941

Fairfax 입주 간병인 구함
87세 여성 오실분. 요리, 목욕, 밤간병인
응급상황시 투입, 운동, 마사지
6일 근무, 낮시간. \$5000 cash 매달
703-568-8024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세일즈(Marketer) 직원,
한국어/영어 가능자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4115 Annandale Road, suite 105
Annandale, VA 22003

VA첸틸리에 새로 오픈하는 shoe repair,
alteration 기술자 각각 구합니다.
703-340-4777 Lee

방청소 하실분. 페어팩스, 스프링필드 지역
703-980-1917

빌딩청소하실분 파트타임 남여1명
장소 칼레지팍 MD 경험자우대
703-725-1233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링 주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 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아난데일 홈디오 옆 위치.
넓고 밝은 3 level 타운홈, 방3, 화2+2.5
전체마루, 덱, walkout, 5월 초 입주
703-725-7871

센터빌 타운하우스 렌트 (월 \$2,795)
Hmart 근처, 분리된 워아웃 베이스먼트 (화
장실 포함). 전체3층, 방4+ 화장실 3.5.
▶703-244-3453

콜롬비아 싱글홈 월\$3,800
방5, 화4, 차고, 2리버힐 학교
410-599-1800 문자요망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 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연락처 :301-385-3535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 타운홈 H마트 앞. 월 \$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 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카 가라지. \$2,850
703-762-6759

클리프톤, H마트 3분, 싱글홈 렌트.
방4, 화4, 전층 리모델. \$3,900
(12/10 이사가능)
571-215-3070(문자요망)

센터빌 타운하우스 전체 렌트
세입자 구합니다.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 3. 쇼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Maryland Clarksburg 즉시 입주 가능
End unit 벽돌집 Townhouse rent
월 \$3,000 방3, 화장실 2, 반화장실 2
차고 2 넓은 Deck, 부엌 updated
Hardwood floor, 걸어서 Harris Teeter
연락처 Mrs. Cha 301-775-9215

<콘도 렌트>

Manassas 콘도 \$1,600 / 즉시 입주 가능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 집 전
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
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
집. 8800s.f.(넓은 size) Costco 가까운 동네
▶703-477-3114

Alexandria 다운타운 근처, Amenities 좋음.
▶703-477-3114

페어팩스 웨그랑 걸어서 5분. \$1,150
개인방, 화장실, 보안 보장, 빛 잘 들어오는
703-762-6759

<방 렌트>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매나사스 H-mart 근처 타운홈 방렌트
walkout 1층 전체, 밝고 깨끗한 큰방,
주방(간단한 취사), 욕실, 세탁실, 주차편리,
별도 출입문, 인터넷, 유포, 비흡연자
703-400-4520

노스 포토크, NIST 근처 싱글홈 반지하
출입문 별도, 넓은 거실, 부엌, 화장실,
빨래방, 직장여성구함, 인터넷포함
301-520-2916

센터빌 H-마트, 하이스쿨 각 5분 거리
방 세놓음, 여자분 환영.
703-507-1180(문자 요망)

애난데일 방 1, 샤워실, 출입문, 간단취사
주차 편리, 즉시 입주. 금연자
571-243-6295

DC 출퇴근 매우용이. 395 exit 근처
집앞에 펜타곤 가는 무료버스 10분 간격.
가구 가전 완비, 여성분·금연자 환영
240-477-3232

싱글홈 1층 출입문 별도, 방2, 큰거실,
큰부엌, 화장실
571-525-4220(mr. 권)

애난데일 항공간에 방, 욕실, 키친이 꾸며져
있고 침대, 책상, 냉장고, 전자렌지 구비
571-232-6052

버크 월마트 도보로 5분 깨끗하고 환한
타운하우스 1층, 방1, 화장실1(냉장고/세탁)

기/전자렌지/싱크/옷장/식탁)
워크아웃, 주차 가능, 여성분(학생 환영)
4월15일 이후 입주 가능
202-505-0678 (문자 문의 바람)

저먼타운 MD 콘도, 큰방1, 욕실별도.
금연자, 그랜마트 6분 롯데 11분, 오래게실 분
702-622-8853

애난데일 H-mart 옆 방1 세놓음
인터넷, 가구일체, 취사가능, 유포 \$800
직장 다니는 남자 환영. 3월말 입주
703-975-0123

MD 렌탈지역 조용하며 교통편리
직장인을 위한. 즉시 입주 가능.
방세저렴, 큰방, 1작은방1
301-379-9660

애난데일 H-mart 뒤 콘도.
화장실 딸린 큰방 렌트
703-300-8669

방 하나 렌트. 주차장 충분, 출입문 따로.
571-237-3411

Fairfax GMU 근처 Townhouse 에 방 렌트
욕실 가구완비 \$800 여 학생 직장인
703- 981-7615 (문자)

알렉산드리아 킹스타운 콘도 렌트 \$750
방 1, 취사 세탁 가능, 남자분 환영
703-403-7757

애난데일 한강식당 뒤 타운하우스,
지하전체 워크아웃, and separate
entrance. NO smokers.
703-354-3476

애난데일 지하실 방1, 화장실1
703-887-5173

조용한 로던(페어팩스) 주택가
1층 같은 워크아웃 지하전체(방3개)
넓은 리빙룸, 인터넷, 유포, 냉장고, 세탁기,
주방시설, 출입문 별도
571-488-5860

애난데일 K마트 뒤 싱글 하우스
방 하나 렌트, 주차 넉넉
703-965-2343

애난데일 방 1, 화장실 1, 애난데일 도서관 옆,
잠만 주무실 직장인 / \$600
703-350-1986

페어팩스 50분도로와 66도로사이
비엔나역 근처 방 렌트, 남자 직장인 환영
571- 530-7322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5분거리
방1개 렌트, 직장인 남자 환영
703-419-0337

롬 메이트 구함 애난데일 (교통편리)
잠만 자실 분(남자), 인터넷 및 가구 완비
703-560-6424

Fairfax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방 1 \$600
방 2개 \$1000, 여자분 한함
문자 바람 571-214-0188

NOVA, GMU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방 1 \$600
방 2개 \$1000, 여자분 한함
문자 바람 571-214-0188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비즈니스 커머셜 리스팅

- ▶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상업용,
1,500 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 ▶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 개발 중인 진입로에 독립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 *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명원, 샴핑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 ▶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 ▶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 ▶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 가정, 사업체에 만 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경우 이메일 주시기바랍니다.)

C15

이노바병원 근처 단독주택 Walk-out 지하전체(입구 별도) 방2, 욕실2, 거실, 취사가능 \$2,000(전기, 가스, 물, 인터넷포함)
문의: 703-975-4989 (문자만 주세요)

애난데일 방 세 놓음 703-966-9597

MD실버스프링 싱글홈 2층 마스터베드룸쓰실룸, 가구·인터넷완비, 한아름10분거리, 넓고 조용함
240-543-6427

애난데일 방 렌트. 방에 욕실, 키친, 침대, 책상, 냉장고 완비, 개인 주차자라도 있음.
571-232-6052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뒤쪽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Wifi 제공
703-835-7404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부동산 매매

〈싱글/타운/콘도 매매〉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 렘블러스타일 2. 스포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q.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한한 스퀘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립물,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부동산/상업용 매매〉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립물,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얄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Sale Price: \$290,000
·Weekly's sales: \$6300. (평균)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파트너십 / 여러 다양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 렌트 인상 없습니다)
·노던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571-421-0863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 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알렉산드리아 location 아주 좋습니다.
한국치킨가게 개인적 사정으로 내놓습니다.
문의전화: 703- 975-7718

1. 메릴랜드 자이언트엠프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부부가능. 좋은장점있음.
2. DC.리퀴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 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nrcoin777@gmail.com

메릴랜드 중심에 9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 은퇴로 매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M, 의욕과 능력에 따라 확장 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

뷰티스플라이, 메릴랜드 자리집힌 고급 흑인지역, SBA 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

Pick up 매매 주인 은퇴 Good location. 알터레이션 가능한 한 분, 세탁소 오프너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매상 4천
렌트 \$525(전기로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슬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걸기
· 장소: 버크레이크 헬터 C
· 시간: 일요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 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노바대학교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춘 2분거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입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 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보호자 봉사 하실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들의 새로 운 삶을 위하여 봉사바랍니다.
▶문의: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 백업이나 수리, 세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싯가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개인 및 그룹 미술 지도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시간조율 가능!
703-489-6567(문자바람)

〈중고품/기타매매〉

-거실용 대형 카펫트 \$1000
-도자기 꽃병(4세트) \$100
-교자상 2개(정사각형, 직사각형) \$100
-손수 만든 화장대 \$100
703-401-9905

피아노(Everett) Free로 드립니다.
필요한분 문자주세요.
Tel.571-668-0805

허리 운동하는 까꾸리 싸게 팝니다
사용설명서 있음 \$50
240-477-3232

골프채 판매
-드라이버 9.5도 315cc
-아연 닉센트 4—9 S P 변까지 8개
-던랍(스페인제)3—9 P S 7개
-요크스 6—9 P N 6개
240-475—4166

2024년형 Hyundai Tucson 5700마일
유학생 귀국사정으로 매매 \$27000
상태 최상
703-989-9828

귀국관계로 빅세일
런닝머신 \$150, 이탈리아 가죽 소파 3명 \$200, 등산 배낭 신발, 스틱, 알카라인 싱크대용 정수기 기타 등등
703-597-8909

골프채 아이언 샷 Surpass 3—9번까지 7채
NICKENT 4—9, P, S 9채
240-475-4166

중고 승용차합니다. 운행에 지장 없는 차
파시려는 분은 연락바람
240-796-0093

2012 Hyundai Santa Fe 6 Cylinder
SUV Silver (현대산타페 은색) 82,500 mile
Good condition \$8,500
703-350-1986

Moving Sale 가격파괴 세일
안마의자 \$950 (Reg. \$5500), 운동기구, 자개장, 냉장고, TV 및 여러 가지 가정용품 등
이사관계로 정말 좋은 가격으로 판매
240-274-4945

Used 정품 혼마드라이버, 아이언셋을 좋은 가격에 팝니다.
드라이버: 베레스 4 스타, Regular, 9.5도
아이언셋: 베레스 3 스타, Regular, 5-11, SW (8개)
301-526-7000 로 전화 or 문자 주세요.

〈건축/페인트/마루〉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My Roofers 영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 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인터텍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보석〉

골든벨라보석(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헬리콧시티, MD)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클 파워 스티밍 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시, 파워 풀 청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정크 8282 각종 밀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링/전등/햇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시공 - 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드맨서비스
집밥-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
▶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
상징,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입업 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올라리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 ▶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 ▶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입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무료견적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VA/DC/MD↔NY 정기운행
- 쓰레기 처리가능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ong.com / va@pumyong.com / vapumyo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함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전기 공사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I.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용자

맞춤 용자의 길인

마이클 장

질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팀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 페인트
◆ 목수 ◆ 전기 ◆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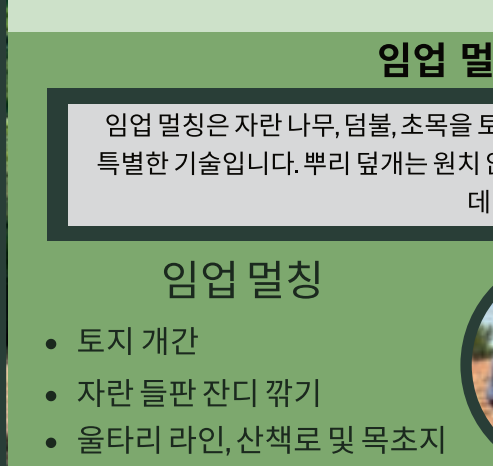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전  **후**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크래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기타 지역

매매

Hybrid Battery

Recondition Shop
Relocation 가능
쉬운운영,무경험자 가능
San Jose지역, 가 55만
(714)552-5714

스시/월남국수 식당

변화된 사평몰안,4000SF
BBQ와 데리아끼 시설완비
전체리모델링,트라이아터 워싱턴주
가격 23만 (네고가능)
기술전수 (206)499-0507

꿈 을 위한 도약
중앙안내광고가 함께 합니다.
(213)368-252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총장 법학박사 허위드레

비즈니스 상용 용자

- 2008부터 A+ 비즈니스 용자 전문 미국 금융 회사
- 은행(Bank) & 비은행(Non-Bank) 프로그램들
- 동종업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
- 크레딧 손상 안되는 무료 승인
- 자세한 내용은 한글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

Bank Line of Credit
Rate: Prime+2-5%, 월 최소 이자만 지불, up to \$250,000 per Bank

운영자금 용자 간단하고 빠른 용자
Line of credit 사용한 금액과 기간만 이자
기계장비론 새것 & 중고 구입

SBA 부동산 용자 25년 상환, 적은 다운
SBA 7(a) 용자 10년 상환
기계장비 담보 용자 LTV 80%까지

한국어 (516)972-7760 웹사이트: funding1234.com

YONSEI UNIVERSITY GLOBAL MBA 2024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7 - APRIL 18
Application: SUBMIT ONLINE
Tel. +82-2-2123-3254 | Email. gmba.admissions.ysb@yonsei.ac.kr

잡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210-9720, papaaaa.com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Up to 40% 할인
미라클터치로 살균
30년 1파운드 \$750 → \$550
40년 1파운드 \$1,500 → \$950
50년 1파운드 \$2,350 → \$1,500
전산살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졸림·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아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 ~~\$5500~~ → \$1700

지극지극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 삼삼음육탕 도안역사당 50% 특별할인가
Tel, 213.33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리주 동시게재??!!**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을 겨울 마지막 찬스를 잡으세요! (선착순 50분)
www.ilwoulusa.com

- 품질대상 9년 연속 대상
- 한국소비자 만족지수 1위
- 대표 브랜드 대상
- 한국 온열매트중 일월만 인증 UL®
- 침질방 효과 탄소원선 원적외선 방출
- 전자파 걱정없는 무자기 탄소 원선
- 물세탁 가능
- 15시간 후 자동 전원 차단
- 좌우 분리 난방 (2인용)
- 환제 걱정 없는 7층 안전 장치

					
탄소 원적외선 벨보아원단 기모 극세사 워셔블 온열매트 트윈 \$329 린 \$379 트윈 \$229 린 \$279	탄소 원적외선 향균원단 에어로실버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269 더블 \$299 싱글 \$169 더블 \$199	탄소 원적외선 100% 천연섬유 프리미엄 텐셀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309 더블 \$359 싱글 \$219 더블 \$259	탄소 원적외선 특수코팅 방수 온돌마루 카본 카페트 중형 \$385 대형 \$465 중형 \$335 대형 \$415	모터없이 자연순환방식 숲속애 온수매트 트윈 \$349 린 \$419 트윈 \$299 린 \$369	편리한 소파용 온열매트 \$129 \$79

특점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Annandale \$899,900

방4, 화장실 4, 편리한 렘블러 스타일



특점

새로 리모델한 콘도

Annandale \$209,900

새 마루, 새 페인트, 업데이트된 부엌과 화장실



특점

리모델한 예쁜 타운하우스

Fairfax \$735,000

Costco 동네



특점

완전 리모델한 엔드유닛 콘도

Centreville \$329,900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마루, 밝고 환한 콘도, 새 페인트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